

2015 SKKU

논술전형

가이드북

인문계

GUIDEBOOK

201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전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Level 01. 준비 모드

06

2015 수시 논술전형 안내

12

지원자 전형 적합 테스트

14

논술 실전 Q&A

16

논술시험 전문가 길잡이

Level 02. 전략 모드

26

성균관대 논술시험의 특징

28

논술 문제 유형 및 대비법

40

논술시험 유의사항

42

합격생이 전하는 공부 비법

Level 03. 실전 모드

46

2015학년도 모의논술
_ 문제 & 해설

58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인문 1) _ 문제 & 해설

66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인문 2) _ 문제 & 해설

74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인문 3) _ 문제 & 해설

82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인문 1) _ 문제 & 해설

90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인문 2) _ 문제 & 해설

98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인문 3) _ 문제 & 해설

TOP SECRET

별지

106

2014학년도 인문계 논술시험
우수 답안 및 평가 포인트

*

수시모집 논술시험 실전 답안지 견본

2015
SKKU
논술전형
가이드북

이 가이드북은 성균관대 수시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논술시험 대비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한 권의 가이드북으로도 충분히 성균관대 논술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성균관대 논술전형 안내, 논술시험의 특징 및 유형 해설 등을 실었습니다. 더불어 기출 문제와 답안지 견본을 제공, 실제 시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6

2015 수시 논술전형 안내

12

지원자 전형 적합 테스트

14

논술 실전 Q&A

16

논술시험 전문가 길잡이

Level 01

준비 모드

2015학년도 입시 정보는 널려 있다. 문제는 그 많은 정보 중 내게 꼭 필요한 정보가 없다는 것. 여기 성균관대 입학처가 직접 분석한 2015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안내부터 지원 전략, 수능 최저학력기준 정보 그리고 현장 입시 지도교사의 논술전형 분석과 길잡이까지, 다른 곳에 절대 없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전형 어떻게 뽑나?

- 대계열, 특성화 학과, 전공 예약까지 다양한 모집단위
- 수능능력시험일 주말 인문계 11월 15일(토), 자연계 11월 16일(일) 논술시험 실시
- 우선선발 폐지, 학생부 교과영역 반영 방법 변화
- 전년도와 문제 유형 동일
- 수시 모든 전형 간 중복 지원 가능

성균관대학교는 2015학년도 수시 논술우수전형을 통해 총 1,171명을 선발한다. 객관식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논리적·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며 수시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 모집단위 역시 다양해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공학계열 등의 대계열뿐만 아니라 경영학, 글로벌리더학, 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학, 의예, 소프트웨어학, 반도체시스템공학,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 건축학 등의 학과 모집,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예약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전형 요소는 학생부와 논술이며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성균관대학교 논술우수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선발 폐지와 학생부 교과영역 반영 방법의 변화라 할 것이다. 우선선발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선발에 해당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면 되며,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과목 중 상위 10개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수능과 내신보다 논술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논술우수전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설치 학부 / 학과	
인문계	인문과학계열	100	유학·동양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학, 중어중문학, 독어독문학, 러시아어문학, 한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사회과학계열	160	행정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소비자가족학, 아동·청소년학, 경제학, 통계학	
	경영학	100	경영학	
	글로벌리더학	30		
	글로벌경제학	50		
	글로벌경영학	50		
	사범대학	교육학	30	
		한문교육	30	
	전공예약	사학	12	
	영상학		15	
	의상학		20	

자연계	자연과학계열	100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식품생명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 유전공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100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	
	공학계열	255	화학공학부/고분자시스템공학*,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축토목공학부, 조경학, 시스템경영공학, 건축학(5년제)	
	소프트웨어학	15		
	반도체시스템공학	30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	15		
	건축학(5년제)	20		
	의예	8		
	사범대학	수학교육	16	
		컴퓨터교육	15	
합계		1,171		

*통합 명칭은 추후 결정

선발 방법

수시 논술우수전형에 지원하게 되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40%, 논술 60% 비율로 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능 성적은 선발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될 뿐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즉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더 이상 수능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무리 학생부와 논술 점수가 우수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합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술우수전형 지원자는 우선 본인의 수능 성적이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나부터 따져 보아야 하며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한다면 이제 선발은 학생부와 논술 점수의 양상에 따라 결정된다. 합격생들의 점수를 살펴보면 논술우수전형의 경우 학생부나 논술 점수의 편차가 큰 편이다. 학생부가 불리하다면 논술로, 논술이 불리하면 학생부로 상쇄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 미리 대비하자.

논술우수전형 지원 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논술우수전형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구분	학생부	논술	수능 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40	60	적용

우선선발 폐지, 일반전형에 해당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올해 논술 전형은 우선선발 폐지로 인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의 구분이 없어 선발 방법이 간소화되었다. 또한 기존의 일반선발에 해당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논술우수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는 국어A/B, 수학A/B, 영어, 사탐/과탐/제2외국어/한문(1개 과목) 중 3개 등급합 6 이내이고(국어·수학 중 한 과목은 B형 응시) 자연계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2개 과목) 총 5개 중 3개 등급합 6 이내이다. 자연계 중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과는 별도의 최저학력기준이 있으며 수학B, 과탐(1개 과목) 등급합 3 이내를 만족하면 된다. 의예과도 별도의 기준이 있으며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2개 과목 평균) 중 3개 1등급이다. 올해 자연계의 최저학력기준에서 주의할 것은 과탐 2개 평

균이 아니라 과목 각각을 하나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급합을 계산할 때 과탐 2개 과목이 모두 인정되어 수험생의 부담이 줄었다. 아직 수능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충족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모의고사를 통해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예행연습일 뿐이다. 결국 지금 이 순간 수험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선부른 예측은 하지 않는 것,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수능 필수 응시영역

구분	필수 응시영역
인문계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과탐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사탐/과탐
자연계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수능 최저학력기준

구분	수능 최저학력기준
인문계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과탐(1개 과목) 중 3개 등급합 6 이내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사탐/과탐(1개 과목) 중 3개 등급합 6 이내
자연계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2개 과목) 총 5개 과목 중 3개 과목 등급합 6 이내
반도체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학, 글로벌바이오메디칼엔지니어링학	수학B, 과탐(1개 과목) 등급합 3 이내
의예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2개 과목 평균) 중 3개 1등급

- ※ 1. 인문계는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 1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 2. 의예과는 과탐 2개 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평균값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논술우수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예시

인문계 예시 1

국어A/B	수학A/B	영어	사탐/과탐/제2외국어/한문		최저기준 충족
			세계지리	사회문화	
2	4	2	2	4	

인문계 예시 2

국어A/B	수학A/B	영어	사탐/과탐/제2외국어/한문		최저기준 충족
			한국사	경제	
4	3	1	3	2	

인문계 예시 3

국어A/B	수학A/B	영어	사탐/과탐/제2외국어/한문		최저기준 충족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2	2	2	3	3	

자연계 예시 1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최저기준 충족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2	4	5	3	1	

자연계 예시 2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최저기준 충족
			화학 I	화학 II	
4	2	2	2	5	

자연계 예시 3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최저기준 충족
			화학 I	생명과학 II	
4	1	1	4	5	

논술우수전형 학생부 교과영역 전 과목 중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

논술우수전형의 학생부 교과영역 반영 방법에도 변화가 있다. 주요 교과를 학년별 다른 비율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3학년 1학기까지의 전 과목 중에서 상위 10개 과목의 등급만 반영한다. 또한 동일 과목이라도 학기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과목으로 인정하고, 석차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예체능계 과목은 우수, 보통, 미흡을 각각 2등급, 5등급, 8등급으로 적용한다.

또 10개 과목의 석차등급 평균을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단위수도 반영하지 않는다. 학생부 비교과영역은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에 기재된 비교과 내용 전반을 통해 학교생활 충실도, 성실성, 잠재 역량, 리더십,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학생부 반영 방법의 변화로 교과 성적의 편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는 논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논술시험은 예년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할 예정이므로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연습해 본 지원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 내신과 수능만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

2015학년도 논술우수전형 우선선발 폐지와 학생부의 교과영역 반영 방법의 변화는 논술 영향력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논술 준비를 별도로 하지 않았더라도 걱정은 금물이다. 성균관대학교의 논술시험은 고교 교육과정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 유형과 범위를 고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논술전형 합격생들은 별도의 준비보다는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한 연습 위주로 성균관대학교 논술을 준비해 왔으며,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신과 수능 대비를 성실히 해 온 학생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 세부사항

시험장 발표	2014. 10. 31(금) 14:00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admission.skku.edu)		
논술시험	인문계 : 2014. 11. 15(토) / 자연계 : 2014. 11. 16(일)		
반영비율	60%	대상자	지원자 전원
평가형식	논술	평가시간	120분
평가내용	▷ 인문계(영상, 의상 포함) : 통합교과형 - 국어, 사회 ▷ 자연계 : 수학, 과학 - 수학 2문제 + 과학 2문제 (물리 I, II / 화학 I, II / 생명과학 I, II 6개 과목 중 2개 과목 선택, 시험 당일 문제지 수령 후 선택)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필기구		

모집단위별 논술시험 일정

① 인문계(영상, 의상 포함) : 2014. 11. 15(토)

구분	시간	모집단위	시험장소
1교시	08:40~10:40(08:00 입실완료)	인문과학계열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또는 자연과학캠퍼스(수원)
		교육학	
		한문교육	
		사학	
		영상학	
2교시	12:40~14:40(12:00 입실완료)	사회과학계열	<개인별 시험장 발표> 2014. 10. 31(금) 14:00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admission.skku.edu)
		3교시	
3교시	16:40~18:40(16:00 입실완료)	경영학	
		글로벌리더학	
		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학	

② 자연계 : 2014. 11. 16(일)

구분	시간	모집단위	시험장소
1교시	10:40~12:40(10:00 입실완료)	공학계열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또는 자연과학캠퍼스(수원)
		건축학(5년제)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2교시	14:40~16:40(14:00 입실완료)	자연과학계열	<개인별 시험장 발표> 2014. 10. 31(금) 14:00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admission.skku.edu)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반도체시스템공학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	
		소프트웨어학	
		의예	

논술우수전형 학생부 반영방법

구분	총점	교과			비교과	
		반영점수	반영교과	반영지표	반영점수	반영지표
전모집 단위	40	20	전 교과	석차등급	20	비교과 전반

가. 교과 평가기준 및 반영방법

-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전 교과·과목 중 석차등급 기준 상위 10개 과목 선정
 - ▶ 동일과목이라도 학기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과목으로 인정함
 - ▶ 석차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예체능계 과목은 우수, 보통, 미흡을 각각 2등급, 5등급, 8등급으로 적용함
- 위의 기준으로 선정된 10개 과목의 석차등급 평균 산출(소수점 이하 절사, 단위 수 미반영)
- 우리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석차등급 평균에 해당하는 환산점수 부여

나. 비교과 평가기준 및 반영방법

-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에 기재된 비교과 내용 전반을 평가하되, 공인어학성적, 교외수상실적 등 학생부 기재 제한 활동실 적은 일절 반영하지 않음
- 학생부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봉사활동실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특기사항 기재 내용 중심 평가
- 학교생활 충실도, 성실성, 제반 활동의 계열(전공) 적합성, 잠재역량, 리더십 등을 학업소양, 전공적합성, 리더십 및 성실성 등의 세부평가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함

다. 비교과신 적용 기준

- 대상 :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 졸업자 등
- 적용기준 : 논술시험 성적에 의한 비교과신

지원자
전형 적합
테스트

수능, 학생부, 논술의 트라이앵글로 보는 지원자 타입별 솔루션

자주 변하는 입시제도, 혼란스러워요!

정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에 의해 2015학년도 입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생부, 논술, 실기, 수능 위주로 유형화하고 동일 전형 내에서 우선선발이 없어지는 등 대학들이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전형을 변경하였다. 고교 2년 동안 기존의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입시를 준비해 온 고 3 수험생들로서는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균관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선부른 걱정은 금물이다. 비록 명칭은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다. 수시 76% 정시 24%의 선발비율, 학생부와 논술로 나누는 수시, 선발방식에 있어서 전년도 입학사정관전형과 크게 차이가 없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특히 논술우수전형은 우선선발 폐지로 오히려 수능에 대한 지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는 수능과 학생부, 논술의 트라이앵글에서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에게 오히려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논술우수전형이지만 수능이 중요하지 않나요?

논술전형은 상대적으로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능 성적이 좋으면 논술전형에서 유리했던 것은 사실이다. 바로 우선선발 때문이다. 일반선발보다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유리한 측면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올해의 양상은 다르다. 우선선발이 폐지되고 논술 외적인 평가요소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특히 성균관대는 기존의 일반선발에 해당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제시, 수험생의 수능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올해 논술우수전형은 논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예정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완전히 무시하진 말자,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다.

성균관대 논술, 지원해도 괜찮을까?

수시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걱정스러운 지원자들이 많다. 수능 공부에 방해되는 것은 아닌지, 수능 성적 올리기도 급한데 논술 준비까지……. 일반 벌이는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은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 과연 성균관대 논술우수전형에 지원하는 것은 옳은 선택일까? 다음 문항을 통해 지금 나의 위치와 앞으로의 할 일을 점검해 보자.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대비할지 밑그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TYPE 지원자 타입

수능 최저	학생부	논술
A: 논술우수전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B: 성균관대전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C: 학생부가 우수한 편이다 D: 학생부가 그다지 좋지 않다	E: 틈틈이 논술 준비를 했다 F: 논술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다

SOLUTION 타입별 솔루션

ACE형

논술우수전형 최저기준 충족 가능,
학생부와 논술 모두 경쟁력 있는 사람

일단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충족되고 틈틈이 논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논술우수전형은 필수다. 더구나 학생부까지 우수하니, 학생부종합전형에도 적격자. 수능에 조금 더 매진, 한 과목만 1등급을 받아 성균관대전형에 도전하거나 수능이 불안하다면 글로벌인재전형으로 도전하자.

-

ACF형

논술우수전형 최저기준 충족 가능,
학생부는 우수하나 정작 논술이
부담스러운 사람

성균관대 논술 기출 문제를 본 적이 있는가?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문제 유형 유지, 쉬운 난이도 등 성균관대 논술은 별도의 준비 없이도 대비 가능한 논술로 평평이 나 있다.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논술우수전형에 도전하자. 당신의 경쟁자들 역시 논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학생부종합전형에는 무조건 한 표를 던져라.

-

ADE형

논술우수전형 최저기준 충족 가능,
학생부는 좋지 않으나 논술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

논술우수전형의 40% 학생부 반영비율이 두려운가? 그런 당신에게 올해 논술우수전형의 학생부 교과영역 반영 방법의 변화는 무엇보다 큰 희소식.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과목 중에서 상위 10개의 등급을 반영하되 동일 과목이라도 학기가 다른 경우 다른 과목으로 인정, 예체능 포함에 석차등급 평균 산출 시 소수점까지

버려 준다. 올해는 논술의 영향력이 중요해진 만큼 두려움을 버려라.

-

ADF형

논술우수전형 최저기준 충족 가능,
학생부가 좋지 않고 논술 경험도 없는 사람

학생부도 부족하고 논술 경험도 없다면 매우 불안할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기는 이르다. 학생부는 이제 움직이지 않지만 수능과 논술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굳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논술우수전형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약화된 만큼 일단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당장 논술 기출 문제를 확인하자.

-

BCE형

성균관대전형 최저기준 충족 가능
학생부와 논술 모두 경쟁력이 있는 사람

일단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은 필수다. 그러나 우수한 경쟁자들이 다투는 만큼 방식은 금물. 성균관대를 원하는 지원자라면 논술우수전형에도 주목하자. 자신의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논술우수전형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감안한다. 충족시킬 수 있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될 것이다.

-

BCF형

성균관대전형 최저기준 충족 가능,
학생부는 우수하나 정작 논술이
부담스러운 사람

학생부종합전형은 필수,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만 의지하지니 마음이 불안하다. 논술을 준비하지니 겁부터 나는가? 그러나 논술우수전형 최저학력기준에 자신 있다면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자. 논술이 아주 우수하지 못해도 합

격할 수는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절대 합격할 수 없다. 일단 수능 최저 통과라는 카드를 쥐고 있으니 이것을 십분 활용할 것.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논술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팀!

-

BDE형

성균관대전형 최저기준 충족 가능,
학생부는 좋지 않으나 논술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

누구보다 수능에 매진해야 할 타입이다. 아무리 성균관대전형 최저기준이 통과라 하더라도 학생부가 낮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불안하다. 그렇다면 학생부의 영향력이 낮은 논술우수전형에 투자가 필요한 상황. 논술우수전형 최저등급 충족을 목표로 수능에 매진할 것!

-

BDF형

성균관대전형 최저기준 충족 가능,
학생부가 좋지 않고 논술 경험도 없는 사람

학생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올린은 위험하다. 더구나 논술우수전형 수능 최저가 된다 하더라도 논술 경험까지 없으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그러나 너무 좌절하지 말자. 당신뿐만 아니라 논술 준비를 충분히 한 수험생은 없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것. 성균관대 논술은 수능 공부를 통해서 대비 가능하므로 논술우수전형 최저기준 충족을 목표로 수능 공부에 집중하자. 그리고 꼭 논술에 응시할 것.

출제자가 답한다, 논술 실전 Q&A

논술 문제 제시문은 어떻게 뽑으시나요? 출처가 궁금합니다.

출제의 기본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실제로 출제 기간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두루 살펴서 수험생의 사고력, 문제 해결력, 서술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포함한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이런 주제에 관한 질문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제시문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인문계 제시문의 경우, 독서나 경험의 폭이 좁은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정확한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제시문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를 간파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제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논술의 주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의 연관성입니다. 둘째는 제시문들의 가독성입니다. 이 두 요건은 우리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출제 목표인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대비 가능한 논술시험'을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셋째는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의 출제입니다. 이 점은 바로 우리 대학 논술시험의 두 번째, 세 번째 문항의 출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의 창의성을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통상 네 번째 문항을 통해 반영되는 포인트로, 수험생 나름의 견해 혹은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모색하여 서술할 수 있도록, '열린 문제(open question)'의 형태로 출제됩니다.

고3 학생들은 성공관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출 문제 풀이로 논술 준비하기 ● 우리 대학의 논술 문제 출제 경향은 다른 대학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의 기출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수험생들이 논술 준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이 가이드북에 수록된 기출 문제별 '문항별 해설'이나 '답안 작성 포인트'를 잘 살펴보고 글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활용한 논술 준비 ● 다양한 사회 교과의 교과서들은 본문 외에 탐구 활동 또는 읽기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에 관한 심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많은 경우 본문의 주제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 또는 본문 주제에 관한 심화 읽기 자료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절대 그 래서는 안 됩니다. 이 가이드북에 수록된 최근 기출 문제의 주제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안 작성 시 학생들이 피해야 할 점이나 실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핵심 내용 비켜 가기 ● 출제자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답안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논술시험은 답(필요한 내용)이 있는 글쓰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잘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에 맞추어 답을 써야 합니다.

사족 덧붙이기 ●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분량의 많고 적음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적인 글쓰기에 익숙한 학생들이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 일부 학생들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문제 해결의 과정을 바르게 서술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분량 늘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사족을 덧붙인 셈이 되어 본인이 쓴 답안의 전체적인 논지를 흐리는 우를 범하게 되고, 결국 감정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불완전한 답안 작성 ● 제한된 120분의 시간 동안 답안을 충분히 작성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는 충분히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사소한 실수로 기회를 날려 버리는 학생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답안지를 깨끗하게 작성하려는 강박입니다. 잘못 쓴 부분을 무리하게 지우개로 지우다가 답안지를 찢거나, 자신의 논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답안지를 받아서 작성하는 경우도 자칫 제한된 시간에 답안을 완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20분은 처음 보는 제시문을 이해하고 요구하는 답을 쓰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 안배를 잘해야 하고, 작성한 답안 중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두 줄을 그어 수정한 것임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간 지저분한 것이 쓰다 만 것보다 좋습니다.

답안의 내용 외에 글씨체, 맞춤법, 띄어쓰기도 채점에 영향을 미치나요?

실질적인 답안의 내용 외에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을 조리 있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글씨체는 중요하지 않으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다 중간에 필기도구를 바꿔서는 안 되니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춤법 및 띄어쓰기는 기본적인 소양이니 평소에 잘 훈련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답안 작성 후 훑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답안에 직접 퇴고해도 됩니다. 이 경우 역시 고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만 작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퇴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시험 전에 퇴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정 부호를 익혀 둔다면 보다 깔끔한 답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가이드북 뒤에 첨부된 실전용 답안지로 연습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워 보십시오.

수능과 논술, 한꺼번에 대비하기

경희여자고등학교 교사 윤상철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과 논술 함께 준비하기

얼마 남지 않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수험생들은 EBS 국어영역 문제집을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대입 수능도 준비하고 논술시험도 준비해야 하니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수능과 논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있다. EBS 국어영역 문제집에 수록된 다양한 비문학 제시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 연습을 한다면 논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시문 요약을 잘할 수 있게 되어 이중 부담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 참고 : 다음은 '인터넷 수능 8주 마스터-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 147쪽의 제시문을 단락별로 요약한 것임.

1 죄를 저지른 사람을 왜 처벌하는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는 죄를 저지른 자는 당연히 그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하며 처벌의 정도도 저지른 죄와 같은 정도여야 한다고 보는 ㉠'절대형주의'이다. 이에 따르면 죄인을 벌하는 것은 정의의 명령이고,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다고 한다.

→ 형벌 목적에 관한 이론 : [이론 1] 절대형주의 - 형벌 그 자체가 목적

2 절대형주의에 대응하는 입장을 '상대형주의'라고 하는데,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우선 ㉡'일반 예방주의'라는 것이 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일반에게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특정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이론 2] 상대형주의 - 형벌은 일정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을 함

→ [이론 2-1] 일반 예방주의 - 형벌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

3 상대형주의의 또 하나의 입장은 ㉢'특별 예방주의'이다. 이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화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죄의 결과보다는 범죄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교화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신중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그 범죄자가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재사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이론 2-2] 특별 예방주의 - 형벌은 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존재함/범죄자의 재사회화

4 특별 예방주의가 얼핏 보기에는 형벌과 관련된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처벌보다 교화를 중시하고 범죄자 개인의 재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이고 신중적으로 형벌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벌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단순한 사고이다. 일단 형벌이 범죄자를 교화해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특별 예방주의는 죄를 저지르면 그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형벌에 대한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특별 예방주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특별 예방주의는 교화와 신중적 형벌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재범자가 있다는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이론이며 형벌에 관한 전통적인 사고와 맞지 않음

5 그러므로 형벌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입장들을 모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범죄자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형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형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형벌에 대해서는 모든 이론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

그리고 EBS 국어영역 관련 문제집에서 출제되는 비문학 독해에는 다양한 주제의 제시문들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논술을 위한 배경지식 습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비문학 독해 영역 중 사회영역의 글은 사회 과목의 내용과 연계하여 살펴본다면 배경지식을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BS 국어영역 관련 문제집에 수록된 비문학 제시문의 예

영역	주제	출전
인문	정신과 육체의 관계 : 심신이원론과 심신일원론	인터넷수능 - 독서와 문법 B
인문	데카르트의 '무의식 개념' : 정신과 육체의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인터넷수능 - 독서와 문법 B
인문	자기동일성의 문제 : 테세우스의 배 - 질적 동일성과 수적 동일성	인터넷수능 - 독서와 문법 B
인문	선과 악의 기준 : 홉스와 스피노자의 입장	인터넷수능 - 독서와 문법 B
인문	정신과 육체의 관계 - 유물론의 한 유형인 물질주의의 관점	수능특강 - 국어영역 B
인문	윤리성의 원천 : 좋음(목적주의) vs 옳음(의무주의)	수능특강 - 국어영역 B
인문	가치의 본성 : 가치 실재론 vs 가치 비실재론	N제 B
인문	행복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	N제 A
인문	정의 : 시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N제 A
인문	중용 : 유가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N제 B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영역과 논술 함께 준비하기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문제의 주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익힌 내용을 기반으로 정한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연계되었다고 해서 교과서의 본문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제시문들의 출처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EBS 교재(국어 및 사회탐구 영역 등)
- 교과서에서 언급된 문헌의 다른 부분
- 교과서에서 다른 주제와 관련된 제3의 문헌

그렇다면 논술 준비를 위해 모든 교과서의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살펴봐야 하는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대다수 성균관대 논술 문제는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과 이를 사회 현상에 접목시켜 설명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과목이 주된 표

적이 될 것이다. 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논술 준비가 결국 대입 수험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논술은 객관식이 아니므로 수능을 위해 사회 과목을 공부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이론을 사회 현상과 접목시켜 보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교과서에 수록된 이론적인 내용과 탐구활동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사회 현상과 접목시켜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성균관대 논술 문제 주제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출제 연도	주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2014 학년도	인문 1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을 비교	• 『윤리와 사상』 • 『생활과 윤리』, 1-3.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
	인문 2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정치 공동체 발전의 방향에 대한 동화주의적 입장과 다문화주의 입장을 비교	• 『생활과 윤리』, VIII-3.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 『사회·문화』, III-3-2.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
	인문 3 사회·문화 탐구 방법론인 실증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을 비교	• 『사회·문화』,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2013 학년도	인문 1 사회적 가치인 형평성과 효율성이 양립 불가능한지 아니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비교	• 『경제』, 1-2-3. 다양한 경제 목표 • 『사회·문화』, IV-2. 사회계층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 • 『도덕』, II-2-2. 분배 정의와 복지의 실현
	인문 2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의 측면에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입장과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옳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비교	• 『윤리와 사상』, III-2-1.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인문 3 현대사회의 두 가지 핵심적 사회제재인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이념형적 구분 및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한 찬반 논쟁	• 『윤리와 사상』, IV. 사회사상 • 『경제』, 1-2. 경제 체제와 경제 목표
2012 학년도	인문 1 인간 행위의 특성을 자기 이익의 극대화라는 좁은 의미의 합리성으로 보는 입장과 동료의 행동, 사회적 압력, 여론, 규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를 비교	• 『윤리와 사상』, IV-1-1. 자율과 책임 • 『사회·문화』, II-2. 개인과 사회의 관계 • 『경제』, II-1. 가계의 역할과 의사결정
	인문 2 정의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입장과 사회의 효율성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비교	• 『도덕』, II-1. 사회제도와 정의 • 『경제』, 1-2-3. 다양한 경제 목표
	인문 3 사회나 정부(혹은 법)의 인위적인 강제, 간섭 그리고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와 자유는 발전에 대한 실질적 조건과 기회 및 합리성과 참여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적극적 자유를 비교	• 『법과 정치』, III-2.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도덕』, 1-1. 자유와 자율 • 『윤리와 사상』, VI-3-3. 자유와 평등의 조화
2011 학년도	인문 1 사회적 현상을 이해·평가하기 위한 윤리적 토대들이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무론과 공리주의 입장을 비교	• 『윤리와 사상』, III-2-4. 공리주의와 관념론
	인문 2 세계화가 초래하는 정치·경제·문화·환경적인 다양한 현상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비교	• 『사회·문화』, VI-3-1. 세계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경제』, V-4.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 『생활과 윤리』, VIII-3.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인문 3 행위 주체의 이기적 속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입장과 집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행동하려는 행위 주체의 사회성 본성이 사회의 성장과 인간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라는 입장을 대비	• 『윤리와 사상』, IV-1-1. 자율과 책임 • 『사회·문화』, II-2. 개인과 사회의 관계 • 『경제』, II-1. 가계의 역할과 의사결정
2010 학년도	인문 1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 일원론'이 더 유용하다는 입장과 '다원론'이 더 유용하다는 입장을 비교	• 『사회·문화』, 1-3.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인문 2 집단 안에서 개인이 다수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발적으로 따라하는 행위인 '동조'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순기능)과 부정적인 측면(역기능) 비교	• 『윤리와 사상』, IV-1-3. 공동체와 연대 • 『생활과 윤리』, V-2. 사회 부패 현상과 윤리
	인문 3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공정성에서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분배 공정성'과 분배를 결정해 가는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 여기는 '절차 공정성'을 비교	• 『도덕』, II-1. 사회제도와 정의 • 『윤리와 사상』, V-3. 사회복지 문제와 윤리

2015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 준비하기

보성여자고등학교 교사 류원호

논술시험의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논술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정시 모집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논술시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고, 이는 세간에 대학 전반의 논술 폐지로 비치기도 했다. 서울대의 이런 행보가 우리나라 대입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논술시험에서만은 미미하다. 대다수 대학들은 논술시험을 유지하고 있고, 입시 설명회와 더불어 논술 특강을 대규모로 여는 등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서울대 논술시험이 대다수 대학과 달리 정시 모집에서 이루어진 점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논술시험이 일반 전형의 핵심으로 정착한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비록 많은 대학의 반영 비율이 50% 이하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실질 반영률이라고 부르는 변별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교과 성적, 수능 성적이 비슷한 경우 논술이 구분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논술시험을 대비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논술시험은 그동안 '사교육 조장'의 원흉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난해하고 긴 제시문과 높은 차원의 문제들이 고교 교육과정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오해나 편견도 그런 현상에 일조했다. 그러나 논술 문제의 제시문 구성은 오히려 교육과정을 따르는 편이다. 논술 문제의 제시문으로 자주 활용되는 것은 '교과서'의 본문이다. 이 밖에도 EBS 교재를 활용하거나, 제3의 글을 인용하지만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글들이다. 응시 시간과 출제 문항 수를 줄이는 등 대학들의 노력도 맞물려 이제는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우리 사회가 의사소통 능력과 표현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바란다는 점은 향후 논술시험이 대입에서 유지되리라 전망에 힘을 보탠다. 넘치는 정보와 지식 속에 숨은 뜻을 발굴하고, 이를 분석한 뒤 창의적으로 가공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고차원의 능력은 단기간에 기를 수 없는 자질이다. 이렇기에 대학에서는 상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에 논술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제는 대학마다 장기간에 걸친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논술 전형은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대학 출제 경향 분석(2014학년도 수시 기출 문제 중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일반 전형 선발 인원이 특기자 전형보다 적은 738명이다. 그러나 논술시험의 반영률은 70%로 매우 높다. 아울러 대다수 대학이 수능 이후에 논술시험을 치르는데, 연세대는 10월 초에 논술시험을 예고하여 11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연세대는 ‘통합 논술’을 지향하여 왔고, ‘다면사고형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해 왔다. 2014학년도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되었고, 인문 계열 논술에서는 ‘공감’과 관련된 제시문을 배열하여 특정 인물의 태도를 분석하고,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게 했다. 사회 계열 논술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한 제시문을 제공하고, 제시문을 분석하여 현대사회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기를 요구했다.

문제에서 다루는 내용이 관념적이긴 하지만, 1쪽에 담길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제시문에 핵심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기에 독해에 대한 부담은 적다. 오히려 제시문과 그 속에 내포된 개념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해 내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2개의 문항이 각각 1,000자의 답안을 요구하고 있어, 충분하고 다각적인 사고와 함께 짜임새 있는 글의 구성과 전개가 뒤따라야 할 유형이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는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논술을 45% 반영한다. 지난해부터 응시 시간과 문항 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문계A’ 문제의 경우, ‘평등’을 대주제로 삼고 출제했으며 구성된 제시문들에는 <허생전>이 포함되어 수험생들에게 친숙함을 주었다. 그러나 한 문제에 많은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논제 분석에 소홀하면 자칫 답안에 꼭 담아야 할 요소를 누락시킬 수 있다. 더불어 900자라는 약간 긴 답안을 매끄럽게 작성하려면, 개요 작성을 통해 글의 구조와 분량을 적절히 안배하는 훈련이 앞서야 할 것이다.

고려대는 수리 논술 문제를 꾸준히 출제하고 있어서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높은 편이다. 두 번째 문제로 구성된 수리 논술은, 다른 대학에 비해 수학적 연산력과 사고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에 일부 학생들에게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는 전형 명칭에 ‘논술’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발 인원이 468명으로 수시 모집 인원의 약 43%이다. 정시 모집 인원까지 포함해 산출해도 약 28%에 달하는 인원을 논술로 선발한다. 실제적인 일반 전형으로서 논술시험의 반영 비율은 60%로 높다. 나머지 40%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교과와 비교과로 각각 20%씩 균등하게 나눠 정량 평가를 하며, 큰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서강대는 인문 계열 논술을 학부별로 세분하여 3개 군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른다. 따라서 수험생은 자신이 지원할 전공이 어느 학부에 속하는지를 미리 살피고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인문계/영미문화계/EU문화계/동아시아문화계’ 지원자들의 경우 ‘시’를 포함한 문학 작품 해석을 거쳐 다른 제시문과 관련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의 형태가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분화가 많이 돼 있고 최대 2,500자의 매우 긴 답안을 써야 하기에 수험생에게 친절한 형태라 하기는 어렵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의 특징

성균관대학교는 2015학년도에 1,171명을 ‘논술우수전형’으로 선발한다. 논술을 포함하는 전형인 ‘과학인재전형’ 인원 193명을 더하면 총 1,364명을 논술시험으로 뽑게 되며, 이는 수시의 정원 내 선발 인원의 약 5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총 1,149명인 점을 고려하면, 성균관대 수시 주요전형은 바로 이 두 전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인가, 아니면 논술전형인가?”

주변에 누군가가 논술을 공부하고자 문의해 오면, 성균관대 논술 문제를 반드시 권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과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유형화가 잘되어 있다. 성균관대 논술은 논술 학습이나 시험에서 거쳐야 하는 과정과 단계가 적절하게 구분되어 패턴을 이루고 있다. 먼저 제시문의 내용을 주제에 대한 입장에 따라 정리하는 ‘요약형’ 문제가 서두에 출제된다. 이어 제시문의 개념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비평하는 ‘설명형’ 문제와 ‘평가형’ 문제가 뒤따른다. 마지막은 대개 대주제를 형성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안 제시형’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논술문 작성의 흐름이기도 하여 4개 유형의 답안을 자연스럽게 묶기만 한다면 1,000자가 넘는 답안도 작성할 힘을 갖출 수 있다. 이는 2014학년도 수시논술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논술 문제(인문 1)

유형	번호	문제
요약형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5>는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새로운 유형	문제 2	[문제 1]의 대립 구도 하에서 <보기 1>의 갈등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서술하시오.
설명형	문제 3	<자료>가 보여 주는 두 현상을 [문제 1]의 입장(들)과 연관시켜 각각 설명하시오.
대안 제시형	문제 4	[문제 1]의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 사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만 택하여 논술하시오. 그리고 <보기 2>를 참고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러한 흐름은 ‘문제 확인 - 문제 분석 - 대안 검토 - 대안 선택 -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문제 해결 모형’을 활용한 것으로서, 선발 시험으로서의 기능에 더하여 ‘학습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문제의 형식이 다양하다. 대학마다 각각 그 나름대로 특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고려대는 수리 논술 문제를, 서강대의 경우 ‘시’ 감상과 분석을 포함하여 수험생들을 적잖이 당황시켰고, 소설을 끝에 실고 논의를 구체화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건국대). 막상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이나, 제시문은 한 문단도 없이 오로지 ‘표’와 ‘그래프’로만 문제를 구성하기도 한다(서울여대).

성균관대 논술 문제가 이런 모든 경우를 망라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대한 문제별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약형’ 문제는 대주제에 대한 대립된 시각을 고루 주고 분류하게 하여 수험생의 독해력을 한 차원 높게 평가한다. 위 표의 [문제 2]는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적이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명형’이나 ‘평가형’을 바탕으로 발전된 셈이다. ‘설명형’ 문제나 ‘평가형’ 문제에서 ‘표, 그래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자료 제시형’ 문제도 성균관대 논술의 특징이다. ‘대안 제시형’의 경우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실제적 문제를 제시하여, 원리만 관념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구체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셋째, 단계적이면서도 일관된 흐름을 지닌다. 성균관대 논술의 유형은 논술 문제 해결의 단계와 연관이 된다. ‘요약’이 있어야 ‘설명’과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의 토대가 있어야 그 위에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의 조각을 세울 수 있다. 다른 대학도 평가 요소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출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계별 문항이 서로 연관성이 없이 분절돼 있다(동국대). 요약 능력이나 평가 능력을 측정하기엔 손색이 없지만, 전체적 흐름 속에서 종합적인 사고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성균관대 논술 문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4개 내외의 문항이 동일한 문제의식과 주제 속에 이어진다. 이는 이제껏 출제된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의 표에도 드러난다. [문제 2~4]에는 어김없이 ‘[문제 1]의 대립 구도하에서’, ‘[문제 1]의 입장(들)과 연관시켜’, ‘[문제 1]의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등의 조건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모든 문항은 동일한 주제 아래에서 심화되는 특징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넷째, 출제의 경향이 안정되어 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다면 유리하다. 대학 입시가 해마다 조금씩 틀을 바꾸어 혼선을 유발하기에,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입시 제도’를 운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성균관대 논술은 오랜 기간 출제 형식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오면서도 출제의 기본 틀은 큰 변화가 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험생의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줄여 주는 요소이다. 4~5개의 문항 수, ‘요약 - 설명 - 평가 - 대안 제시’의 단계별 흐름, 자료 제시를 통한 평가 방식 등은 이제는 성균관대 논술을 대표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끝으로 교육과정의 원리를 실제 현상에 연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이는 주로 마지막에 놓이는 ‘대안 제시형’ 문제에서 탁월함을 발휘한다. 교과서 속의 주요 원리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하여 사회적 이슈나 우리 사회의 현안을 도구로 활용한다. [문제 4]의 복권 사업 문제도 ‘목적적 수단을 정당화하는가?’라는 원론적 물음을 구체적 현실의 마당으로 끌고 간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복권의 구매자가 되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딜레마를 되짚게 한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에 대비하려면

성균관대 논술에만 들어맞는 대비법이 있을 수는 없다. 형식은 다르더라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한 훈련 과정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다룬 성균관대 논술의 특징과 장점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관점을 길러라

성균관대 논술의 논제는 기본적으로는 입장과 시각이 대립하거나 구분되게끔 설계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논점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찾아내려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교과 원리나 사회 현상을 두루 살피되, 늘 어떤 현상에 대한 '다른 시각'을 설정하거나 조사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요약형' 문제 해결에 특히 유용하며, 다양한 제시문들이 어떤 기준에서 하나의 대주제로 귀결되는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자. 앞의 표에서 살펴본 [문제 2]의 경우도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좀 더 깊이를 갖자면 '다층적'인 분석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토론'이나 '역할 놀이'를 평소에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때에는 일부러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대립하는 논지를 옹호하기 바란다. 시각의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예상 가능한 비판과 반론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술문을 쓸 때에 대립하는 두 시각을 모두 작성해 보는 것도 좋다.

문항 간 관계 파악과 문제 분석을 철저히 하라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명제는, 적어도 논술시험에서만큼은 참이다. 특히 성균관대 논술은 문제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 단계적이면서도 일관된 흐름을 지닌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문제 2]부터는 [문제 1]의 주제와 내용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언뜻 보면 상관이 없는 제시문과 문제일 수 있으나, 그 사이에 숨은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장 독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 분석을 세밀하고 철저히 해야 한다. 문제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전제나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등을 문제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히 찾아야 한다. 앞의 표에서 살펴본 [문제 4]를 예로 들자면, "[문제 1]의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 사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만 택하여 논술하시오. 그리고 <보기 2>를 참고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란 문제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요구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답안에 들어갈 내용 요소	답안 작성의 조건
- 정부의 복권 사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 주장에 대한 논거	[문제 1]의 제시문 활용 → 논거로 활용
- 예상 비판에 대한 극복 방안 제시	<보기 2> 참고 → 반대 의견이나 논거 확인

문제 분석을 철저히 한다면, 제시문 독해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논술문의 개요를 정리하는 데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해석 능력을 길러라

[문제 2]나 [문제 3]에서는 대개 그래프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때 제공되는 자료는 매우 복잡하거나 난해한 것이 아니므로 지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료의 제목을 우선 확인하여 자료의 성격과 내용을 가늠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의 변화 방향을 꼼꼼히 살펴서 다른 문항이나 문제 전체의 흐름에 비추어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 해석은 사회 교과 과목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뒷받침 증거의 역할을 자주 하기 때문에 평소 교과 학습에 충실하여야 한다. 사회 과목의 학습 활동 중 심화 활동을 개인의 논술 과제로 삼는 것이 가장 손쉬운 연습법이라 하겠다. 아울러 자료에서 활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나 '경제' 과목을 재료로 삼자.

더 해야 할 말이 있으나 너무 많은 말은 오히려 독이 될 듯하여 줄인다. 그러나 논술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꾸준히 대비하고 실력을 연마하라는 당부는 다시 강조하여야겠다. 수험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관리, 자기 소개서, 면접 등의 준비와 수능 공부에 더하여 논술을 대비하라는 것은 가혹한 현실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의 본질과 기본은 서로 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과 성적 향상이나 수능 득점 향상을 위한 준비도 논술에 도움이 됨을 기억하자. 다 따로 하면 힘들지만, 하나로 묶으면 부담이 줄어든다. 수능 제시문도 논술 대비에 좋은 읽을거리가 된다. 특히 수능 제시문을 '요약형' 문제로 보고 스스로 요약하는 훈련을 하면 일거양득이 된다. 수능 제시문의 의견에 반박하는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논술 연습이 된다.

공부의 왕도는 뚜렷한 목표와 합리적 계획,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다. 주 1~2회씩 정기적으로 논술문 작성과 평가를 반복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이기며 뜨겁게 정진한 모든 이들에게 성균관대도 따의 대가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26

성균관대 논술시험의 특징

28

논술 문제 유형 및 대비법

40

논술시험 유의사항

42

합격생이 전하는 공부 비법

Level 02

전략 모드

2015학년도 수시 논술전형에 대한 갈증이 좀 해소되었다면, 이제 효과적인 시험 전략을 세울 단계다. 성균관대 논술시험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특징 파악과 유형 분석이 일차적이다. 이어 실전 논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합격생이 전하는 공부 비법까지 전수받는다면 든든한 전략 수립 완료!



성균관대 논술시험 이것부터 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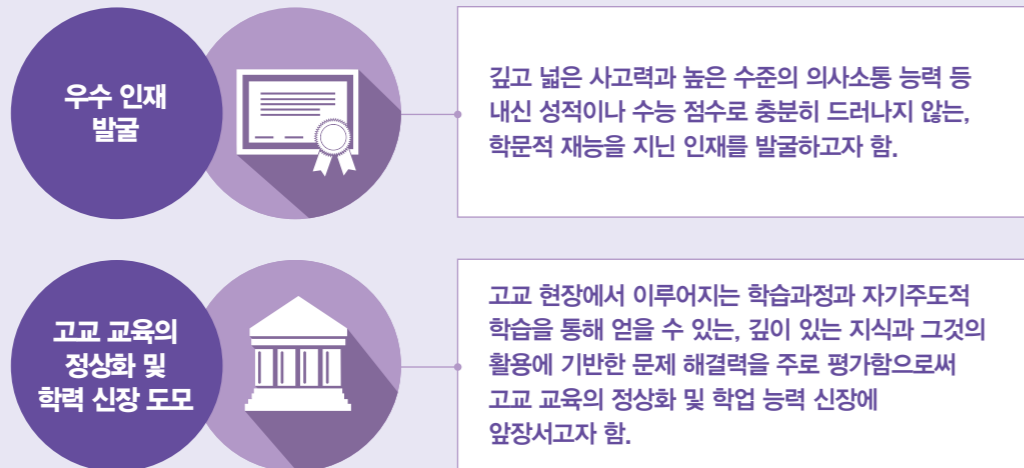
논술시험 시행 목적

● 지적·학문적 잠재력을 지닌 우수 인재 발굴

-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고차원의 사고력과 문해(literacy) 능력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 지식의 단순한 암기력보다 지식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 객관식 혹은 단답형 시험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학문적 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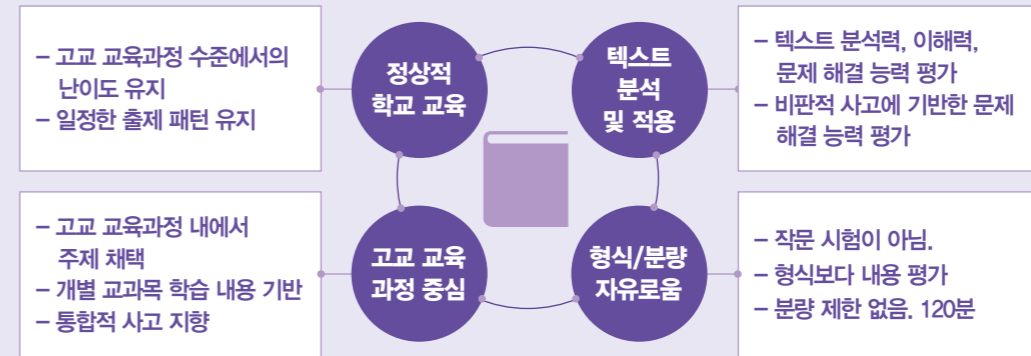
● 고교 교육의 정상화 및 학력 신장 도모

- 우리 대학은 논술 주제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선정하여, 학교 교육으로 대비 가능한 논술 시험을 지향합니다.
- 개별 교과 학습을 통해 얻은 깊이 있는 지식과 그것의 활용 능력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교과 통합형 논술을 지향합니다.
- 우리 대학은 논술시험과 관련된 학습 자료를 직접 제공하여 수험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인문계 논술시험의 특징

우리 대학 인문계 논술시험은 다음의 특징을 가집니다.



● 첫째,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논술시험의 출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 오고 있으며, 주제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문과 각종 자료 역시 수험생들의 독해력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수험생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논술시험의 주제뿐만 아니라 제시문 또한 교과서 안에서 직접 뽑거나 그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논술에서는 종종 인문학과 사회과학 또는 사회과학 안에서의 여러 분야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상호 접근이 가능한 이슈'를 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교과목에 대한 수험생의 심화 학습 정도나 학습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학문적 논점들은 깊이 들어가면 근접한 학문 영역과 만나기 마련입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 안에서 두루 접근이 가능한 쟁점을 논술 주제로 채택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 논술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별 교과목에 대한 심화 학습이 필요하며 이것을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 셋째, 텍스트 분석 및 적용 능력을 평가합니다.

우리 대학은 논술시험을 통해 주로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텍스트 분석력 및 독해력, 이를 활용한 실제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그 내용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서술 능력 등이 주된 평가 항목입니다.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도 이 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답안에는 출제자가 요구한 '문제 해결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넷째, '글의 형식과 분량'이 자유롭습니다.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수험생들이 문제 해결력과 서술 능력, 나아가 창의적 사고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글쓰기 형식 및 분량을 제약하지 않습니다. 수험생들은 각 문항의 답안을 형식적인 제약 없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으며, 글의 분량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원고지를 사용하지도 않으며, 필기도구도 흑색이나 청색이라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시간은 12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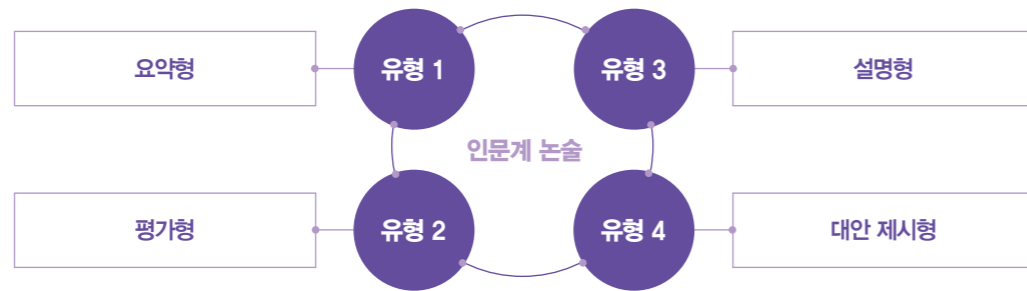


특명, 문제 유형을 익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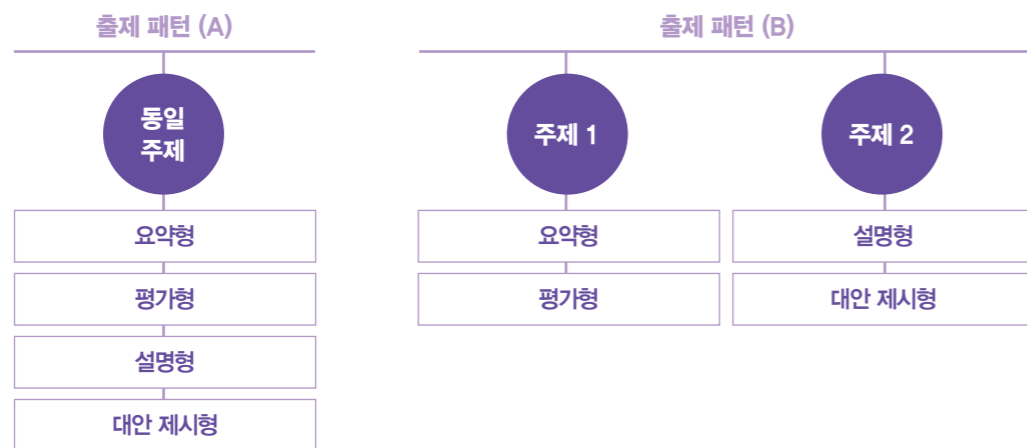
인문계 논술의 문제 유형

인문계 논술시험은 수험생이 인문학 및 사회과학적 탐구의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학문적 성취의 가능성을 지녔는지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인문계 논술시험은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적 탐구의 성격을 반영하여,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독해 및 분석 능력 그리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에 따라 인문계 논술시험은 대체로 아래의 네 가지 유형의 글들을 쓰도록 출제됩니다. 이 네 가지 유형들은 개별 문항으로 나뉘거나, 두 개 이상의 유형들이 합쳐진 복합 문항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문계 논술 문제는 출제 패턴 (A)와 같이 단일한 주제 속에서 요약형, 평가형, 설명형, 대안 제시형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세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수 주제를 선정하여 출제 패턴 (B)와 같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기출 문제의 주제들

출제 연도	주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2014 학년도	인문 1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I-3.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
	인문 2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정치 공동체 발전의 방향에 대한 동화주의적 입장과 다문화주의 입장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과 윤리』, VIII-3.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사회·문화』, III-3-2.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
	인문 3	사회·문화 탐구 방법론인 실증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문화』,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2013 학년도	인문 1	사회적 가치인 형평성과 효율성이 양립 불가능한지 아니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I-2-3. 다양한 경제 목표 『사회·문화』, IV-2. 사회계층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 『도덕』, II-2-2. 분배 정의와 복지의 실현
	인문 2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의 측면에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입장과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옳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와 사상』, III-2-1.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인문 3	현대사회의 두 가지 핵심적 사회체제인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이념형적 구분 및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한 찬반 논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와 사상』, IV. 사회사상 『경제』, I-2. 경제 체제와 경제 목표
2012 학년도	인문 1	인간 행위의 특성을 자기 이익의 극대화라는 좁은 의미의 합리성으로 보는 입장과 동료의 행동, 사회적 압력, 여론, 규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와 사상』, IV-1-1. 자율과 책임 『사회·문화』, II-2. 개인과 사회의 관계 『경제』, II-1. 가계의 역할과 의사결정
	인문 2	정의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입장과 사회의 효율성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덕』, II-1. 사회제도와 정의 『경제』, I-2-3. 다양한 경제 목표
	인문 3	사회나 정부(혹은 법)의 인위적인 강제, 간섭 그리고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와 자유는 발전에 대한 실질적 조건과 기회 및 합리성과 참여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적극적 자유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과 정치』, III-2.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도덕』, I-1. 자유와 자율 『윤리와 사상』, VI-3-3. 자유와 평등의 조화
2011 학년도	인문 1	사회적 현상을 이해·평가하기 위한 윤리적 토대들이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무론과 공리주의 입장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와 사상』, III-2-4. 공리주의와 관념론
	인문 2	세계화가 초래하는 정치·경제·문화·환경적인 다양한 현상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문화』, VI-3-1. 세계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제』, V-4.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생활과 윤리』, VIII-3.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인문 3	행위 주체의 이기적 속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입장과 집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행동하려는 행위 주체의 사회성 본성이 사회의 성장과 인간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라는 입장을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와 사상』, IV-1-1. 자율과 책임 『사회·문화』, II-2. 개인과 사회의 관계 『경제』, II-1. 가계의 역할과 의사결정
2010 학년도	인문 1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 일원론'이 더 유용하다는 입장과 '다원론'이 더 유용하다는 입장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문화』, I-3.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인문 2	집단 안에서 개인이 다수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발적으로 따라하는 행위인 '동조'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순기능)과 부정적인 측면(역기능)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와 사상』, IV-1-3. 공동체와 연대 『생활과 윤리』, V-2. 사회 부패 현상과 윤리
	인문 3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공정성에서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분배 공정성'과 분배를 결정해 가는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 여기는 '절차 공정성'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덕』, II-1. 사회제도와 정의 『윤리와 사상』, V-3. 사회복지 문제와 윤리

인문계 논술의 유형별 설명과 예시

(1) 유형 1 : 요약형

요약은 글의 핵심 내용을 포착해 정리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요약은 단지 글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주어진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어휘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의 전체 주제를 파악해 핵심적인 내용과 부수적인 내용으로 구분하되, 핵심적인 부분(주장)을 중심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들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질문 방식의 예

예 1 : <제시문 1>~<제시문 6>은 각각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그 입장들을 요약하시오. [2013학년도 모의논술]

예 2 : <제시문 1>~<제시문 5>는 자유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각 입장의 요지를 서술하시오. [2012학년도 수시논술 '인문 3']

● 작성 포인트

요약은 주어진 글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그 핵심 논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요약문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글의 논지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글에 있는 주요 문장들을 그대로 발췌하는 것보다는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들을 활용해 재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의 본래 논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요약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문제

<제시문 1>~<제시문 4>는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014학년도 모의논술]

<제시문 1>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본인이 속해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프랑스 숲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이 문명사회의 언어 표현이나 관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나 몸짓으로 나름대로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처럼 '소셜 미디어'를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소위 소셜 미디어적인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표현에도 서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웹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는 얼굴을 보고 수행했던 전통적인 면 대 면 의사소통에서와는 다르게 기계적 메커니즘에 어울리는 언어적 표현이 발생한다. 또한 언어적 소통 능력이 다소 부족했다 할지라도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이미지나 각종 다양한 이모티콘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타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게시하기도 한다. 한편 언어심리학자들은 인지론적 관점에서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언어문화에 더 잘 적응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셜 미디어에 노출된 시기가 젊을수록, 즉 어려서부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경우일수록,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 방식을 더 자연스럽게 인식할 것이며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언어적 특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표현법 습득이나 적응 능력이 우월한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소통 능력도 탁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표현 방식이 굳어져 버린 기성세대보다는 스마트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어릴 적부터 소셜 미디어를 접하며 성장한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들 사이에서 고유한 언어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제시문 2>

매체의 결정적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조해 온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매체는 수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일 뿐 수용자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주장은 현대 매스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의 대표적 성과인 '선별적 노출(selective exposure)' 이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이 이론은 개인 또는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은 각기 다른 경험에 근거해서 다른 지식과 신념을

갖고 있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서로 다른 지식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이용자는 매체가 전달하는 특정한 내용을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매체의 내용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내용을 선별적으로 배제할 것이므로, 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매체의 내용을 선호하는 사람은 이미 그 내용을 받아들일 만한 지식과 신념을 갖춘 사람일 경우가 많으므로, 매체의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 아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기존의 지식과 신념을 더욱 강하게 할 수는 있겠다.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의 이와 같은 미미한 영향력은 매체의 영향력 자체를 결정짓게 된다. 매체는 항상 특정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미미한 영향력은 결국 매체 자체의 도구적 영향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제시문 3>

대표적 매체 이론가인 맥루언(H. M. McLuhan)은 "매체가 메시지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보다는 매체의 독특한 특성 자체가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구어 시대, 문자 시대, 인쇄 시대, 전기 전자 시대 등으로 구분한 그는 각 시대를 주도하는 매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인간의 '감각비(sense ratio)'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인쇄 매체에 의존하는 사회와 텔레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에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은 다르다. 또 전자 매체는 지구촌을 조성하여 전쟁이나 재해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뉴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생생하게 목격하도록 하고,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그는 특히 인쇄 매체와 전기 전자 매체의 등장을 전후해서 일어난 변화에 주목한다. 문자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부족을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말하고 듣는 청각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보다 감성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듣는 것이 믿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쇄술 발명 이후, 인간의 감각비는 읽는 것이 중심이 되는 시각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쇄 문화는 사람들의 인식을 선형적이고, 논리적이며, 범주적이게 만들었으므로 모든 환경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결국 맥루언에 따르면, 매체의 형식과 구조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그러한 매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시문 4>

매체 수용자들은 개인적으로 경험한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체의 산물을 능동적으로 소비한다. '매체가 수용자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매체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매체 수용자는 항상 능동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존재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수단들 가운데 적절한 매체를 선택해서 이용하게 된다. 이용자들은 기분 전환, 인간관계 형성, 개인적 정체성 확인, 환경감시 등과 같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느끼며, 이러한 욕구가 매체에 접촉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체를 이용하게 되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텔레비전 만화를 보고 즐거움을 얻는다든지, 불안과 초조를 느끼는 사람이 현실 도피를 위해 오락 영화에 탐닉한다든지,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광고를 눈여겨 읽는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수용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매체라는 도구를 소비하는 행위이다. 결국 매체는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단순한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해설

〈제시문 1〉~〈제시문 4〉는 매체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크게 '매체 결정론'과 '매체 도구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매체 결정론'을 지지하는 글로서, 매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행동, 나아가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3〉은 이를 매체 철학자 맥루언의 이론을 통해, 〈제시문 1〉은 '새로운 매체 사용에 따른 새로운 언어문화 형성 가능성'을 통해 각각 설명하고 있다.
- ②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매체 도구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매체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부정하고, 매체를 사용자에게 의해 능동적으로 소비되는 도구로 보는 입장이다. 〈제시문 2〉는 '선별적 노출 이론'을 기반으로 이용자에 대한 매체의 실질적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 4〉는 매체 수용자가 개별적 욕구 충족을 위해 능동적으로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을 근거로 매체가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유형 2 : 평가형

평가형 문항은 주로 논리적 평가, 즉 제시문에서 저자의 견해가 제대로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문제점이나 한계를 밝히거나 옹호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평가형 문항은 제시문 자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관련 자료와 제시문 간의 논리적 관계에 근거한 평가로 나뉘며, 수험생은 특정 제시문의 내용에 대해 관련 자료(제시문, 통계표, 그래프, 그림 등)를 근거로 반론을 제시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써야 합니다.

- 비판적 평가(부정적 평가) : 대립되는 견해를 담고 있는 제시문을 활용하여 비판하거나 추가적인 반박 근거나 사례를 활용하여 비판하는 유형
- 옹호적 평가 : 제시문을 지지하는 근거나 사례를 활용하여 주장을 옹호하는 유형

● 문제 질문 방식의 예

- 예 1 : 아래의 〈보기 1〉에 소개된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 1]의 두 입장 각각에 근거해서 평가하십시오. [2011학년도 수시논술 '인문 3']
- 예 2 : 〈설명〉과 〈그림 1〉을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비판하십시오. [2010학년도 수시논술 '인문 2']
- 예 3 : 아래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쪽을 옹호하십시오. [2009학년도 수시논술 '인문(오전)' 변형]

● 작성 포인트

이 문제 유형에서 고득점 비결은, 비판적 평가(부정적 평가)의 경우, 비판하려는 제시문 자체의 결함이나 한계를 드러내 그것을 상세히 밝히는 데 있습니다. 만약 자료를 활용할 경우라면 자료가 어떤 점에서 제시문의 내용과 상충하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이 아닌 옹호의 경우에도 사정은 유사하며, 자료가 어떤 점에서 제시문을 지지하게 되는지, 그 논리적 연관성을 상세히 밝힐수록 좋습니다.

① 비판적 평가(부정적 평가)

예시 문제

아래의 〈보기〉를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비판하십시오. [2011학년도 모의논술]

〈보기〉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 전선에서는 몇 치의 영토를 놓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전투가 중단된 동안은 물론 전투를 하는 동안에도 프랑스와 벨기에 영토의 800킬로미터에 걸친 여러 전선에서는 적군끼리 서로 상당히 자제를 하는 일이 허다했다. 이들 참호를 둘러본 한 영국군 참모 장교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독일 병사들이 그들 방어선 안의 아군 소총 사정거리 내에서 태연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군 병사들도 그것을 보고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나중에 우리가 이 지구를 맡게 되면 이런 것부터 뜯어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병사들은 현재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했다. 양측 모두 '공존공영' 정책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런 일은 이 참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공존공영 시스템은 참호전에서 고질적인 것이었다. 상급 지휘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도, 전투가 아무리 치열해져도,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전투 논리 앞에서도, 그리고 상부 명령으로 국지적 휴전이 좀처럼 이뤄지지 힘든 데도 공존공영 시스템은 활개를 쳤다. 이것은 극한의 적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자들 사이에서 협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예이다.

※ [문제 1]의 두 입장은 다음과 같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은 협력보다는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제시문 1〉: 협력은 뛰어나지 못한 개체들의 모임으로서 민주주의 공동체의 미덕일 뿐이다. (즉, 협력은 열등한 개체들의 행동 양식이다.) 〈제시문 3〉: 경쟁은 자유(자율)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기실현과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자, 사회적 활력과 효율적 조직화의 기반이다.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제시문 2〉: 경쟁이 아닌 협력 중심의 윤리적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세계 최고의 학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제시문 4〉: 자연에서의 생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며, 사회에서 사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다.

해설

{예시 답안 1} 협력의 관점에서 경쟁 비판

〈보기〉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 전선에서의 참호 전투에서 발생한 협력 상황을 말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적대 상황에서조차도 공생을 위한 협력이 가능함을 실제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결코 경쟁이 능사가 아님을 말하는 것으로, 경쟁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에 대한 반대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사례는 〈제시문 1〉의 불안 극장 상황에서도 아귀다툼에 가세하지 않고, 질서를 외치며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뿐만 아니라 〈제시문 3〉의 논지, 즉 경쟁이아말로 사회적 활력과 효율적 조직화의 기반이라는 점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투 상황에서 경쟁은 적군과 아군이 모두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적대적 이기심을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예시 답안 2} 경쟁의 입장에서 협력 비판

〈보기〉의 사례는 협력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에 대한 반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례에서 보이는 공존공영 시스템, 즉 협력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며, 주변 사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언제라도 전쟁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례는 〈제시문 2〉나 〈제시문 4〉의 논지, 즉 협력을 생존 혹은 문제 해결의 주된 기제로 여기는 것 또한 편견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써 협력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입장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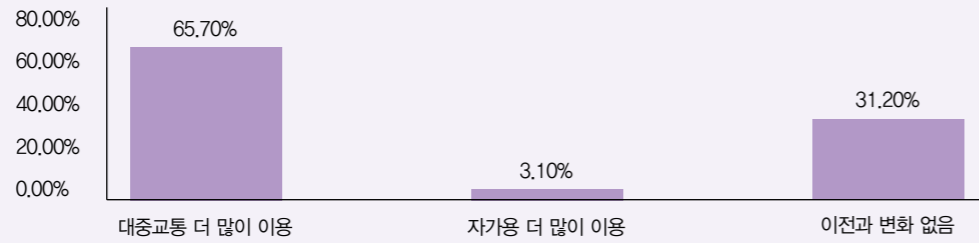
② 옹호적 평가

예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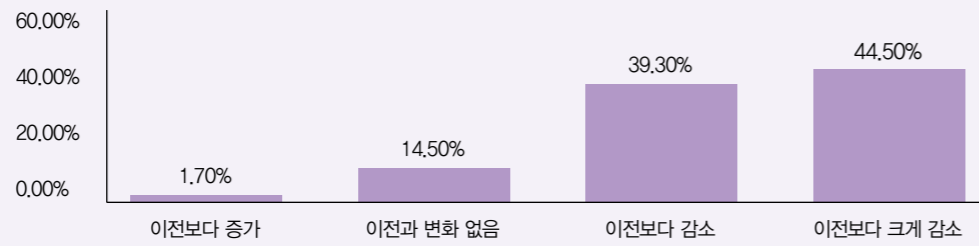
아래의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자료들의 특징을 서술하고, 그것이 왜 그 입장을 지지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시오.

[2014학년도 모의논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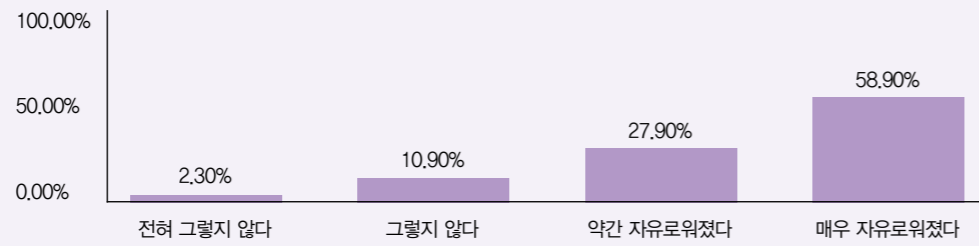
〈자료 1〉노마딕 기기 사용 후 이동 패턴 변화



〈자료 2〉노마딕 기기 사용 후 종이 신문 및 책 읽는 시간의 변화



〈자료 3〉노마딕 기기 사용 이후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정도



* 노마딕 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 기기를 총칭하는 용어

※ [문제 1]의 두 입장은 다음과 같다.

매체 결정론	매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행동, 나아가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입장
매체 도구주의	매체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부정하고, 매체를 사용자에게 의해 능동적으로 소비되는 도구로 보는 입장

해설

〈자료 1〉~〈자료 3〉은 새로운 매체인 노마딕 기기의 사용 이후 발생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자료 1〉에 따르면 노마딕 기기의 사용이 대중교통 이용자를 크게 증가시켰다. 또한 노마딕 기기 사용 이후 종이 신문이나 책 읽는 시간이 많이 감소했으며, 노마딕 기기 이용자 대부분이 기기 사용 이후 자유로워진 것으로 느끼고 있음을 〈자료 2〉, 〈자료 3〉은 각각 보여 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노마딕 기기는 일상 행동, 정보 수집과 활용, 사고와 심리 등의 영역에서 모두 이용자의 삶에 변화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노마딕 기기라는 새로운

매체 보급이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세 자료들이 매체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매체 결정론'을 지지하는 공통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유형 3 : 설명형

설명형은 그림이나 통계적 자료를 통해 문제의 사실이나 현상을 제시하고, 이를 제시문 속에 들어 있는 원리적 견해나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 혹은 예측하게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원리 혹은 이론으로부터 설명항을 연역해 낸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적 설명이나 예측과 그 논리적 구조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자료 해석 및 활용의 중요성

최근 대입 논술시험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한 가지는 통계 수치, 그래프 등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것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 즉 자료 해석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료 해석 과정을 포함시켜 수험생이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해석된 자료와 이론 혹은 원리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그래프, 도표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고 연구 결과가 통계로 처리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일이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자료 해석 능력은 학문적 의사소통을 위해 꼭 갖추어야 할 필수 소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에서도 그와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는 문항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해석 과정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논술 문항에 포함됩니다.

- ① 관련 자료를 해석해서 특정한 견해나 이론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방식(평가형 문항)
- ② 관련 자료를 통해 주어지는 문제 사실 또는 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방식(설명형 문항)

● 문제 질문 방식의 예

예 1 : 아래 그림들이 결합해서 보여 주는 현상을 설명하시오. 단, [문제 1]의 두 입장 중에서 이 현상을 보다 적절히 설명하는 입장에 근거하시오. [2010학년도 수시논술 '인문 1']

예 2 : 〈그림 1〉의 결과가 왜 발생하는지, 앞의 〈제시문 1〉에서 〈제시문 4〉까지의 논점과 연관시켜 설명하시오. [2011학년도 모의논술]

예 3 : 〈자료〉가 보여 주는 두 현상을 [문제 1]의 입장들과 연관시켜 각각 설명하시오. [2014학년도 수시논술 '인문 1']

● 작성 포인트

이 문제 유형에서 고득점 비결은 우선 피설명항으로서 현상의 특징을 주어진 자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기술하고, 또 제시문에 들어 있는 원리나 이론이 어떻게 해서 그 현상의 설명 기반이 되는지를 가능한 한 자세히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주의 사항

'설명하시오'라는 구절이 문항에 들어 있다고 해서 모두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란 용어가 워낙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혼란입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시오'와 같은 형식의 문항, 즉 과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만이 '설명형'에 속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종 '설명'은 '해명' 혹은 '해설'과 혼용되기도 합니다. 해명이나 해설은 특정한 논점이나 논지를 쉽고 명확한 용어로 재진술하여 그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의 설명형 문항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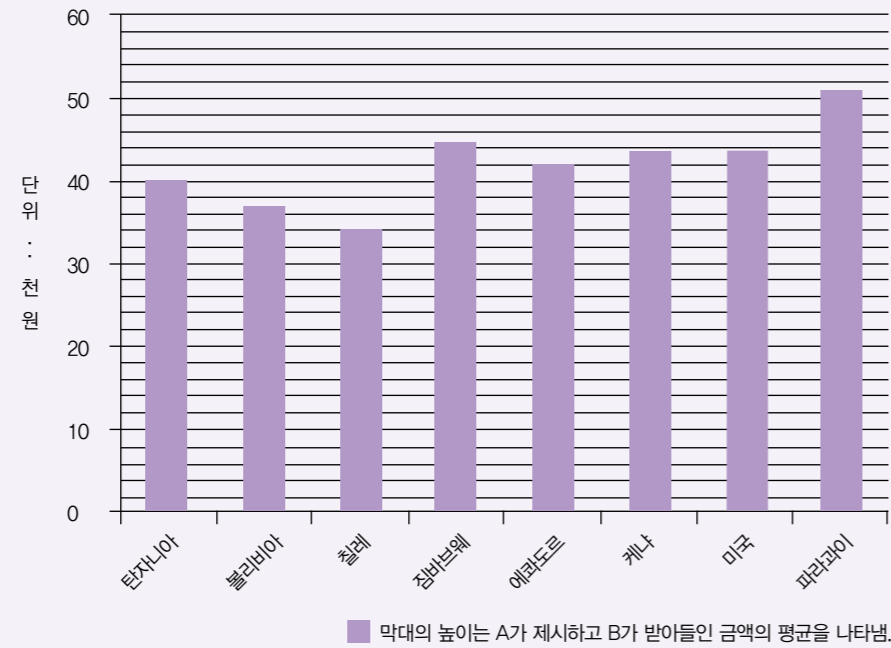
예시 문제

아래의 <보기 2>가 보여 주는 실험 결과를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해석하시오.
[2011학년도 수시논술 '인문 3']

<보기 2>

두 명의 실험 참가자가 일정한 금액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배분 게임이 있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한 실험 참가자(A)에게 10만 원이 주어지며, A는 그 돈 중 일부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자신이 전혀 모르는 다른 실험 참가자(B)에게 주어야 한다. 이때 B는 A가 제시한 금액을 거부할 수 있다. B가 A의 제시 금액을 수락하면 그 제안대로 배분되지만, B가 거부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한 푼도 갖지 못한다. 과연 A는 B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할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았다.

<그림>



※ [문제 1]의 두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기적 본성	<제시문 2> : 개인의 이기심은 사회적 진보와 변명의 원천이다. <제시문 4> : 자기 이익에 대한 애착이 모든 국가 번영의 근본이다.
사회적 본성	<제시문 1> :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자 하는 사회적 본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제시문 3> : 인간은 사회적, 협동성, 신뢰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본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인간 사회와 인간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다.

해설

[문제 1]의 두 입장은 행위 주체의 본성이 이기적이며 이러한 속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입장(제시문 2와 4)과 집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행동하려는 행위 주체의 사회성과 협동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본성이 사회의 성장과 인간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라는 입장(제시문 1과 3)이다.

▶ 그림(실험 결과)에 대한 이해

실험 내용은 최종제안게임(ultimatum game)이라고 불리는 매우 단순한 배분문제이다. 그림에는 선진 자본주의국뿐만 아니라 (수렵 채집 민족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다양한 실험이 수행된 결과 사람들 대부분

은 10만 원의 배분 문제를 두고 상대방에게 3만 4,000원에서 5만 1,000원까지의 금액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기적 본성과 연관된 해석

제시문에 나타난 한 가지 입장인 이기적 본성을 지닌 일종의 경제인으로서 행위주체는 자신의 몫이 가능한 한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배분 비율을 고민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심한다. 제안자 A는 대략 50~70% 정도의 금액을 수중에 확보하고 상대방 B에게 대략 30~50% 정도의 금액을 제안한 사실에서 이 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반대로 B도 이기적 본성을 지닌 합리적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없이 거저 주어지는 대략 30~50%의 금액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 사회적 본성과 연관된 해석

제안자 A는 근본적으로 이기적 동기를 지니고 있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 동기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 B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관계없이 자신이 가진 금액의 30~50%를 선뜻 제안하는 것이다. 반대로 A의 제안이 불공평한 경우, B는 A만이 많은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분노 또는 질투의 감정이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A가 대략 30~50%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면 이를 자신에 대한 협력 및 배려 의사로서 간주하고 수용한다.

(4) 유형 4 : 대안 제시형

이 유형은 전체 주제나 제시문과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관된 문제 상황(또는 현안)을 주고, 그에 대한 해결책 또는 수험생 자신의 견해를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대안을 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칙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 그치지 말고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제시한 대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대안이 매우 그럴듯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 혹은 특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입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 수정 보완형 : 제시문 안에 있는 견해, 해결책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
- 창의적 대안 제시형 : 새로운 견해나 대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하여 제시하는 방식

제시할 대안이 수정 보완 방식일 경우 대안의 정당화는 대개의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의 조건이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창의적 대안 제시 방식과 같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정당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문제 질문 방식의 예

예 1 : 현대사회는 대규모 빈곤, 생태 위기,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사회갈등의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지구온난화' 현상은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술하시오. [2009학년도 수시논술 '인문(오전)']

예 2 : <보기>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되,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시오. [2010학년도 수시논술 '인문 3']

예 3 : 아래 <보기>의 현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문제 1]의 두 입장 중 오직 한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2015학년도 모의논술]

● 작성 포인트

‘대안 제시형’ 문항은 수험생이 문제에 관한 나름의 창의적 생각을 개진해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 만큼 조심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아무리 창의성 있는 글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글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성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제시문의 아이디어를 더 심화시키거나 다른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창의적인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창의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책임지지도 못할 독특한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감점의 대상이 됩니다.

① 수정 보완형

예시 문제

〈보기〉의 두 가지 헌혈 정책의 장단점과 헌혈량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 개선 방안을 [문제 1]의 두 입장 각각에 근거하여 논술하십시오. [2012학년도 수시논술 ‘인문 1’]

〈보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무상헌혈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모든 혈액형에 걸쳐 보유 혈액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헌혈 장려책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 ① 무상헌혈 캠페인
- ② 헌혈 1회당(300cc 기준) 5,000원 보상

해설

두 가지 헌혈 정책의 장단점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문제 1]의 각각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문제 1]의 두 입장은 인간행위의 특성을 (좁은 의미의) 합리성으로 보는 입장과 인간행위가 합리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동료의 행동, 사회적 압력, 여론, 규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 〈좁은 의미의〉 합리적이라는 입장에서

1) 장단점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무상헌혈 캠페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성향의 대다수 개인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명시적 이익도 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하나의 사회적 봉사활동으로서 헌혈을 권유하는 캠페인 정도로는 헌혈량의 증대를 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상 정책’을 채택할 경우 헌혈 행위는 하나의 합리적 경제 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것은 자기 이익의 증대를 꾀하려는 많은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헌혈 장려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보상 정책은 보상금액이 너무 작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혈액의 가치와 헌혈에 수반되는 비용을 5,000원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 정도 보상으로는 헌혈량을 증가시킬 수 없을 것이다.

2) 추가적 개선 방안 : 헌혈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여 지금의 보상액을 최대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 사회 관계적이라는 입장에서

1) 장단점 : ‘무상헌혈 캠페인’은 사회적 관계나 압력에 민감한 개인들의 참여를 잘 유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무상헌혈은 일종의 사회적 봉사 행위로서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개인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을 지향하거나 최소한 타인의 평판을 많이 의식하여 행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헌혈 캠페인은 무상헌혈을 하나의 숭고한 사회봉사 행위로 인식시키게 되고, 이는 다수 개인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헌혈에 동참하게 만들 것이다.

반면에 ‘보상 정책’의 경우 그것이 다수 개인들의 헌혈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헌혈 행위에 대한 정해진 보상액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헌혈 대신에 그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사회적 관계를 의식하는 개인들에게 보상금은, 〈제시문 2〉에 나오는 스웨덴의 사례처럼 모욕감을 주어 오히려 헌혈 참여를 저해할 수도 있다.

2) 추가적 개선 방안 : 헌혈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헌혈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캠페인 횟수를 가급적 늘리고, 다수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헌혈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사실 등 헌혈의 가치, 의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또 많은 사람이 헌혈에 참가하고 있으며, 헌혈에 참가하는 사람이야말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선전하는 등 ‘모방 헌혈’과 같은 사회적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 헌혈자에게 헌혈 배지나 ‘모범 시민’의 칭호 등을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헌혈 교육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 외에도 헌혈 동호회 등 어떤 형태건 사회적 규범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한 경우).

② 창의적 대안 제시형

예시 문제

[문제 1]의 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아래의 키워드 중 3개 이상을 활용하여 각각 제시하고, 두 입장의 대책 중 어느 편이 더 유망할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십시오.

[2013학년도 모의논술]

〈키워드〉

상담, 권력, 통제, 교화, 정의 실현, 억제, 심리 치료, 환경 개선, 법 개정, 제도 개선

해설

[문제 1]의 두 입장이란 범죄가 본능, 유전적 속성, 내적 동기 등 개인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입장과 인간 관계적 요인, 사회변동, 사회적 환경 등 사회(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범죄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찾는 입장이 제시할 만한 범죄 예방 대책은 ‘상담’, ‘교화’, ‘심리 치료’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범죄 원인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경우에 제시할 만한 범죄 예방 대책은 ‘환경 개선’, ‘법 개정’, ‘제도 개선’, ‘정의 실현’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후자의 입장에서는 빈곤 해소 같은 사회문제의 완화, 제도의 정비, 사회 통제의 강화 등과 같은 거시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주장할 것이다.

전자의 입장의 대책을 유망하다고 여길 경우,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 대책이 낮은 실현가능성을 지닌다거나, 그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개인에게 미칠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등의 비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답이 될 것이다.

후자의 입장의 대책을 유망하다고 여길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의 예방 대책의 실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대책은 범죄의 사회적·환경적 측면을 도외시한다는 등의 비판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두 입장 중에서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답이 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채점 포인트이다.

시험일을 앞두고

● 내가 논술시험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논술우수전형 지원자는 모두 논술시험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들은 공고된 날짜의 논술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모집 인원과 관계없이 결격 처리됩니다.

● 나의 시험장소와 응시 시간을 확인

논술시험이 '언제, 어디에서' 치러지는지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2014년 10월 31일(금) 이후 우리 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admission.skku.edu/>)에 들어가서 수험번호와 이름을 넣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시험장소는 내가 인문계나 자연계나와는 상관없이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또는 자연과학캠퍼스 가운데 임의로 배정됩니다. 학생마다 시험장소와 응시시간이 다르니 꼭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 시험 장소까지 가는 방법, 소요 시간, 교통편 확인

시험 장소가 아는 장소이든 모르는 장소이든 준비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시험 장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먼저 체크하고, 시험장까지 도착하는 길을 꼭 끝까지 확인해 봅니다.

● 준비물 확인

시험에 꼭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필기도구입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우리 학교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으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이 들어 있는 학생증 등이 시험장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으니 꼭 챙기세요. 필기도구는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볼펜, 연필, 플러스펜, 샤프펜슬 등이 모두 가능한데 단, 흑색 또는 청색을 써야 하며 답안 작성 중 필기도구 종류나 색상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당일 시험장에 가면 학교 측에서 필기도구를 나누어 주니,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

실전의 날을 준비하라!

논술시험이 다가온다. 어느 시험인들 하루이를 벼락치기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랴만, 그래도 시험 전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이 수험생의 마음이다. 하지만 무리는 금물. 제일 중요한 목표는 시험 당일 자기 능력의 200%를 발휘하는 것이다. 전날까지 코피를 몇 번 쏟았든 막상 시험일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강심장을 자신하는 친구들도 시험 보는 날은 평소보다 좀 더 긴장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안전한 시험장 입성을 돕는 체크 포인트를 제시한다. 지금 꼼꼼히 읽고 준비한다면 여유 있는 하루가 보장된다.

시험 당일 출발하면서

● 꼭 여유 있게 출발

입실 완료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논술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딱 맞게 도착하면 몸도 지치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교통 체증, 배탈, 지하철 연착 등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꼭 여유 있게 출발하도록 합니다. 또 소요 시간을 예상할 때는 시험을 직접 치르게 될 건물이나 교실까지 찾아가는 시간도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 준비물을 모두 챙겼는지 확인

신분증을 안 가져가면 시험을 못 봅니다! 신분증을 챙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 밖의 필기도구(흑색 혹은 청색)나 티슈, 간식, 물 등은 본인의 취향대로 준비하세요. 특히 필기도구는 동일한 것을 여유 있게 준비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수정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필이나 샤프펜슬을 사용하면 지우개로 수정이 용이하니 준비에 참고하세요.

●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

논술시험 당일 시험장 안으로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나 하나만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겠지요.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논술시험을 볼 때

- 시험 시간은 120분이니 알아 두세요.
- 답안은 제시된 문제 순서대로 번호를 적고 써 나갑니다.
- 답안 작성은 꼭 흑색 혹은 청색 필기도구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나누어 주는 필기구를 사용해도 되고요.
- 답안에는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우개는 사용 가능합니다.
- 시험 중에는 학교에서 제공한 문제지와 답안지 이외에는 어떤 연습지도 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제지의 여백을 활용하세요.
- 답안을 쓸 때는 문항마다 정해진 답안 영역 안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글자 수는 제한하지 않지만, 반드시 지정된 답안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쓸 분량을 미리 가늠해 본 후 답안을 적는 것이 좋겠지요? 출제위원이 답안 영역을 벗어날 정도로 긴 답안을 원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세요.
- 답안지에는 꼭 답안만 작성하세요. 답안과 관계없는 내용이나 표시는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답안을 아무리 잘 썼더라도 0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종료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것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는 아무도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종료 전에 답안 작성을 끝낸 학생들도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장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합격생이 전하는 공부 비법

1. 김군태 / 남자 / 소비자가족학과 2학년
2. 고 3 때는 수능 공부에 치중하다 보니 논술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학교별로 기출 문제를 모아 학교별 특징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어.
3. 교재는 딱히 풀지 않았고 책은 논제에 맞추어 읽었어. 무엇보다 각 학교마다 기출 문제를 제시하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4. 기출 문제를 풀어 학교의 논술 출제 스타일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해.
5. 내가 당황했던 건 성대 논술은 분량에 제한이 없다 보니 주위 학생들이 더 많은 답지를 요구했던 거야. 이럴 때 다른 사람보다 적게 썼다고 당황하지 말고 자신만의 답을 쓰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시험 시간이 길어 목이 탈 수 있으니 물을 자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6. 축구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려고 따로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평소애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면 도움이 될 거야.
7. 캠퍼스가 크지 않은 것이 걸로 보기에 단점 같지만 오히려 장점이야. 동기들과 더욱 끈끈한 정을 쌓을 수 있고 건물 사이의 거리도 멀지 않아 이동성도 뛰어나지. 게다가 학교가 종로에 있어 서울 다른 곳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 무엇보다 성공적으로 사회로 진출한 선배들을 통해 자부심을 느껴.
8. 곁에서 보는 성대보다 안에서 바라보는 성대가 더욱 자랑스러워. 입학하면 후회하지 않을 테니 조금만 더 인내해서 내년에 보자!

1. 문수진 / 여자 / 신문방송학과 2학년
2. 고 2에서 고 3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리고 고 3 여름방학에 글 쓰는 방법과 기출 문제를 공부했어. 학기 중에는 방과 후 논술반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공부하면서 감을 유지했고, 먼저 글을 구성하는 방법을 익힌 뒤에 기출 문제를 많이 접하면서 논제를 해석하고 푸는 방법, 표와 그래프를 제시문과 연계해서 푸는 방법들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부분은 학원이 아니어도 학교 국어 선생님들한테 여쭙어 보면서 충분히 익힐 수 있다고 봐. EBS 강

- 의를 들어 보는 것도 추천해.
3. 각 학교의 기출 문제
4. 글 쓰는 방법을 간단히 익히고 기출 문제를 통해 감을 익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 같아.
5. 필기구와 신분증을 잘 챙기고 시간 관리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해. 손목 시계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할게.
6. 맛있는 거 먹기 그리고 내신 시험이 끝나거나 모의고사가 끝난 날은 여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쉬기.
7. 여러 방면에서 자유가 생긴 점이 가장 좋고 새로 얻은 자유에 따른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던 점도 좋았어. 또 학교 홍보대사가 되어서 애교심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
8. 낙담하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해. 그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라도 좋으니, 단기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동기 부여를 하면 좋겠어. 응원할게!

1. 김소윤 / 여자 / 인문과학 계열 1학년
2. 기숙사 학교라 따로 학원을 다니기 어려워 방과 후 보충 수업을 이용했어. 1학년과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방학 때 보충 수업으로 논술 강좌를 들으면서 논술이 무엇인지 배우고 글 쓰는 기초 틀을 연습했지. 그리고 2학년 2학기부터 방과 후 논술 강좌를 들으면서 제대로 된 글을 쓰는 방법, 지문을 읽고 사고하는 연습, 그리고 선생님께 글을 첨삭받고 수정하는 연습을 했어. 3학년 부터는 보충 수업과 더불어 1주일에 1번 정도 인터넷 강의도 들었어. 또 수시 지원할 대학의 기출 문제를 풀며 각 대학별 유형을 파악했어.
3.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대학별 모의논술 문제나 실제 기출 문제 풀이였어. 이 외에 인터넷 강의를 들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어.
4. 답을 쓰고, 모범 답안과 비교해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첨삭을 받고 다시 써 보고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끝까지 직접 써 볼 것을 추천해. 논술은 눈으로 보는 것과 본인이 직접 쓸 때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에는 모범 답안을 똑같이 베껴 쓰는 연습을 통해 문제 등을 연습하기도 했어.
5. 나는 보다 깔끔하게 답안을 쓰고 싶어서 연필 대신 펜을 선택

- 했었어. 그런데 생각보다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당황했고, 또 순간 교정 부호가 헷갈렸던 것도 굉장히 곤란했던 기억이야.
6. 난 기숙사 학교를 다녀서 무엇보다 답답함, 갑갑함을 많이 느꼈어. 그래서 정말 공부하 안 되거나 모의고사가 끝나면 외출증을 끊고 나가 마음 맞는 친구와 맛있는 것도 먹고, 신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됐어. 또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우울할 때는 점수가 가장 잘 나왔던 성적표를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어.
7. 성대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이 사소한 것들부터 큰 것들까지 잘 갖추어져 있어 굉장히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 또한 유일하게 대학 서열을 변화시키고 있는 성대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
8.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알아? 합격 통지서를 받는 그날까지 좌절도 포기도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정말 꼭 눈물 나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성대에서 보는 그날까지 파이팅!

1. 김자연 / 여자 / 인문과학 계열 1학년
2.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 학교별 논술 기출 문제를 먼저 직접 풀어 본 후 각 문항의 우수 답안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봤어. 우수 답안을 자주 베껴 써 보면서 좋은 문구 등에 익숙해지려 노력했고.
3. 글이 짜임새 있게 쓰인 교양 서적을 골라 자주 베껴 쓰면서 작가의 어투나 글 쓰는 방법을 익혔어.
4. 우수한 답안을 모방하는 것 또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여기서 모방이란 그 내용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수 답안의 어투나 글의 구조 등을 따라해 볼으로써 무의식 중에 그러한 방법으로 글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야.
5. 간혹 연필로만 또는 펜으로만 답안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으니 시험을 치러 갈 땐 항상 둘 다 준비하길. 물론 성대는 둘 다 사용할 수 있어.
6. 수험 생활을 돌아봤을 때 후회되는 것은 더 확실하게 써야 되고 공부할 땐 공부했어야 했던 점이야. 그때는 공부가 되지 않고 집중이 잘 안 되어도 무조건 앉아만 있었지. 다시 고 3으로 돌아간다면 쉬는 시간에 노래도 듣고 가끔은 가족들이랑 영화도 보면서 공부할 것 같아.
7. 다른 학교 신입생들을 보면 매일 술을 마시거나 지나치게 놀러 다니며 학점 관리도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대에 대해 열로 입학하 하니 타 대학교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 또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 1학년 때부터 경험의 폭도 넓고 앞으로의 계획도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어.
8. 고 3 수험 생활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어엿해지고 철드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 고 3 때만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살았던 적은 없을 거 같으니까. 끝까지 파이팅!

1. 김정민 / 여자 / 사회과학 계열 1학년
2. 고 3 때는 내신과 수능에 완전히 집중했고, 논술은 1학기 때까지 기출 문제 위주로 꼼꼼히 공부했어. 논술을 공부하겠다고 내신 성적 관리와 수능 준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수능 공부를 우선시한 거지. 그 대신 1~2학년 때 꾸준히, 최소 1주일에 1번은 논술에 관련된 것들을 접하고 글로 써 보려고 노력했어.
3.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모든 기출 문제와 신문 칼럼
4. 일단 고등학교 1~2학년 때는 실전 연습을 하기보다는 교과서나 신문을 활용해 배경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 그리고 글쓰기 자체가 두렵다면 처음에는 꼭 글을 쓰지 않아도 되니 제시문부터 제대로 이해하며 점진적으로 글 쓰는 양과 질을 높이는 방법이 좋아. 그런 다음에 학교별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거지. 기출 문제로 접해 보면 학교마다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유형이나 스킬 등을 익힐 수 있어. 그리고 반드시 2번 풀어야 해. 첫 번째 글을 선생님이나 전문가에게 피드백받고 그 점을 보완해 다시 써 본다면 글이 더욱 깔끔하고 담백해져.
5.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충격을 받거나 주눅이 들 수 있

- 으니 미리 알고 가면 한결 마음이 편할 거야.
6. 난 좀 특이한 경우인데, 공부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몸과 마음으로 스스로를 개조하자 마음먹고 사고 회로를 그렇게 바꾸었어. 다만 자치고 힘들 때는 포스트잇에 당시 기분을 모두 적어서 보곤 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 힘든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재충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 이런 메모들은 모아 놔다가 나중에 읽어 보는 재미도 쏠쏠해.
7.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사람, 즉 학교 분위기 자체가 아닐까 해. 자기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학생도 많고, 학교 분위기 자체도 몽칠 땐 몽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만 선배나 동기 사이에 눈치나 압박 없이 사적인 영역은 잘 지켜 주고 이해해 주는, 거대한 가족 같은 느낌이야. 물론 여러분이 기대하는 훈남훈녀 또한 다른 학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8.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에 맞닿고 담당할 수 있어. 예쁘고 멋진 후배를 기대하고 있는 내게 밥 한번 살 기회를 주렴!

1. 송혜린 / 여자 / 사회과학 계열 1학년
2. 고 2 겨울방학 때부터 1주일에 1번 논술 학원을 다녔어. 수업은 보통 한 학교의 논술 1세트를 풀어 보고 첨삭을 받는 형식이었어. 학원이 끝난 다음에는 첨삭받은 원고지를 보고, 문제 해설을 참고하여 답안을 다시 한 번 작성했어. 다시 써 볼으로써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다음 번에 좀 더 매끄러운 답안 작성이 가능해졌지.
3. 각 학교 논술 책자와 학원에서 판매하는 논술 우수 답안 모음집
4. 1주일에 한 번씩 직접 논술 문제 1세트를 풀어 보고 첨삭과 해설을 들은 후에 다시 한 번 써 보길 추천해. 수능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논술을 준비해야 하므로 1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
5. 난이도가 어렵거나 평상시와는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고, 내가 처음 본 거라면 남도 처음 본 거야.
6.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더 힘들기만 하기 때문에 그럴 땐 아예 재충전을 했어. 2~3일에 1시간 정도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단 음식을 사 먹는 식으로.
7. 우선 대학생이 되면 상상 이상의 자유가 주어지. 학회나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지역, 나이의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어. 또 성대는 대학로와 인접해서 놀러 다니기에도 좋아.
8. 지금 공부하기 힘들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고 걱정도 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공부에 정진해야 해. 나중에 생각하면 다 추억이 되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험 생활을 잘 이겨 내길 바랄게.

1. 이창훈 / 남자 / 글로벌경제학과 1학년
2. 3학년 초에는 유형별로 논술 문제를 풀었고, 논술시험이 가까워졌을 때는 학교별로 논술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었어.
3. 특별한 건 없었어.
4. 주 1회 3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수능 공부에도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고 논술에 대한 감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
5. 솔직히 당황하지 않았어. 성대 논술시험은 어느 대학교보다 매년 거의 동일한 유형이 출제되기 때문이야. 그에 대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고 시험장에 갔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아 늘 하던 것처럼 문제를 바로 풀기 시작하였고 합격할 수 있었어.
6. 난 고 3 수험 생활 동안 성적보다 잠을 적게 자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어. 그래서 주말이나 자투리 시간에 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어.
7. 우선 주변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성대를 아주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해 주는 점이 기분이 좋아. 서울 한가운데에 위치한 성대의 위치도 상당히 큰 장점이야. 서울 어디로든 놀러 다니기가 편해.
8. 내 생각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수능 공부를 잘하는 것이야. 수능 공부와 논술 공부의 비중을 8:2 정도로 유지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랄게.

Question

1. 이름 / 성별 / 소속
2. 논술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어?
3. 논술 준비에 도움이 된 교재가 있다면?
4. 추천하는 논술 공부법은?
5. 알려주고 싶은 시험장 유의사항?
6. 나만의 수험 스트레스 해소법은?
7. 성대생이 되니 좋은 점은?
8. 예비 후배들에게 한마디!

합격자의 비법을 되새겨라!

수능시험을 치르고 나면 곧 성균관대 논술시험이다. 지금으로선 최저학력기준도 걸려 있으니 수능 준비에 올인 하고 있지만 이래도 되는 걸까? 논술 공부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성균관대 논술은 출제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데 과연 올해도 그럴까? 불안함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물어볼 사람은 없고, 이래저래 심란한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다. 성균관대 논술전형 합격생들의 실전 논술 대비법! 엄청난 경쟁률을 뚫은 선배들의 주옥같은 경험담에 귀 기울여 보자.

46

2015학년도 모의논술 _ 문제 & 해설

58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1) _ 문제 & 해설

66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2) _ 문제 & 해설

74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3) _ 문제 & 해설

82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1) _ 문제 & 해설

90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2) _ 문제 & 해설

98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3) _ 문제 & 해설

Level 03

실전 모드

학교별 기출 문제를 풀라! 합격생과 교사 모두 하나같이 강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논술 대비책이다. 성균관대 2015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와 최근 기출 문제들, 그뿐만아 출제진이 직접 제시하는 문제 해설과 예시 답안까지 꼼꼼히 정리했다. 이것이야말로 실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2015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제시문 1〉

새로운 것에 폭 빠진 사람들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 및 운송 기술의 혁명적 변화 덕분에 말 그대로 우리는 ‘국경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에 따라 최근 2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는 변화가 최근에 일어난 ‘세상을 바꾸는’ 기술 진보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런 변화에 반대하는 것은 시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가 없는 국경 없는 세계의 도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국경을 넘어 흘러 들어오는 자본과 노동, 상품이 대해 반드시 가해야 할 규제마저 일부 철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람직하지 않았다. 최근의 기술 변화는 100년 전에 있었던 변화만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100년 전의 세계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에 비해 통신과 운송 부분에서의 기술은 훨씬 뒤떨어졌으나 오히려 세계화는 월등히 진전된 상태였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정부들, 특히 힘센 나라 정부들이 자본, 노동,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기술혁명에 사로잡혀 시각이 왜곡될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 2〉

자유무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동안 우리가 채택하려고 노력해 왔던 방법은 다른 나라들과 관세 인하를 위한 상호주의적 협상을 벌이는 것이었다. 내게는 이것이 그릇된 방식으로 보인다. 첫째, 그렇게 하면 일의 진척이 매우 느려질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법이다. 둘째,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조장한다. 그것은 관세가 관세 부과 국가에는 도움이 되고 다른 나라에는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우리가 관세를 인하하면 그것은 마치 좋은 무언가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관세 인하라는 형태로 보답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실제 상황은 그와 전혀 다르다. 우리의 관세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롭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철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면 우리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혜택을 보는 데 다른 나라들의 관세 인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각자의 사적 이익은 서로 부합되는 것이고, 상충하지 않는다. 영국이 19세기에 곡물법을 폐지하였을 때 그랬듯이, 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유무역으로 나아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정치 및 경제적 힘의 엄청난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시문 3〉

성공을 향한 중국인들의 노력의 결과 (물리적 거리와 재능의 총체적 관계가 변했듯이) ‘난소 복권(ovarian lottery)’이 바뀌었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30년 전에는 미국 뉴욕 주에 있는 인구 3만의 소도시 포킵시 같은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뭄바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근처에서 천재로 태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포킵시를 선택했을 것이다. 평범한 재능이지만 거기서는 운택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평평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든 사업을 시작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물리적 거리보다 재능이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빌 게이츠는 말했다. “지금이라면 포킵시에서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보다 중국에서 천재로 태어나는 걸 택하겠다.” 베를린 장벽이 베를린 광장으로 바뀌고 30억 인구가 이 모든 새로운 협력의 수단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과거보다 다섯 배나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얻을 것”이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제시문 4〉

세계화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고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범위가 전 지구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접촉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만들었으며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부터 완전하게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우려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서구 중심적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가운데 고유한 문화가 소멸하거나 획일화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의 위기』의 저자인 요스트 스미르스는 자유무역의 보편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예술이 처한 위기를 경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나 예술을 경제 논리에 맡겨선 안 된다. 그럴 경우 문화적 획일화가 발생하여 지역 문화를 소멸시키고 개인의 창의성 발휘 기회를 박탈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행복 추구권과 문화적 기본권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의 생산과 배급, 마케팅, 소비 방식 전반이 분산되어야 하며, 지금과 같은 저작권 독점 체제는 달라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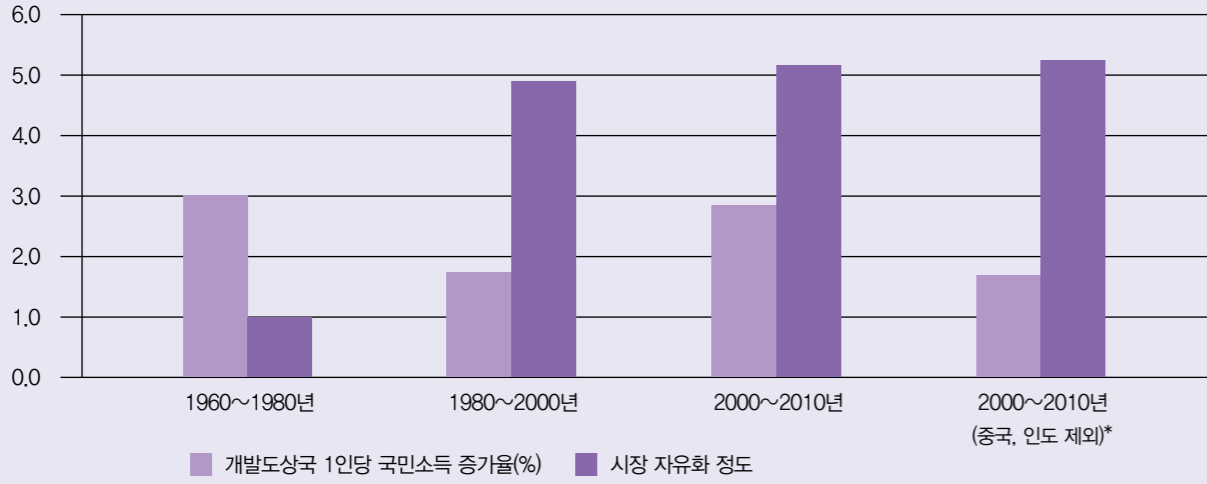
〈제시문 5〉

당신이 소비할 모든 것을 집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직접 옷을 만들고, 곡식을 키우고, 집을 수리하는 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하면 된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자급자족 시대에 농부들이 실제로 살았던 삶이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대체로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별다른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마이클 조던이 농사짓고, 바느질하는 데 온통 시간을 다 바쳤다면 어땠을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은 주(州) 혹은 개인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여긴다.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도 무모한 것이다. 애덤 스미스도 1776년에 쓴 『국부론』에서 이 점을 언급하였다.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데 돈이 더 드는 물건이라면 집에서 만들려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분별 있는 가장이라면 새겨들어야 할 격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외국에서 더 저렴하게 생산하여 우리에게 공급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산업의 산출물을 주고 그것을 사오는 편이 현명하다.

문제 2

아래 <자료>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비판하시오.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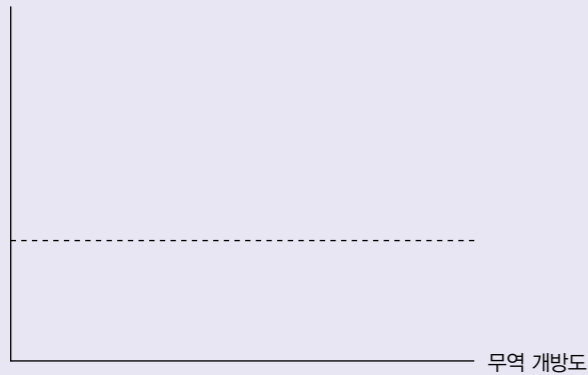
* 중국과 인도는 이 시기 시장 자유화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음.

문제 3

<자료 A>와 <자료 B>를 아래의 '참고 사항'에 근거하여 상세히 해석하고, 그 결과를 모두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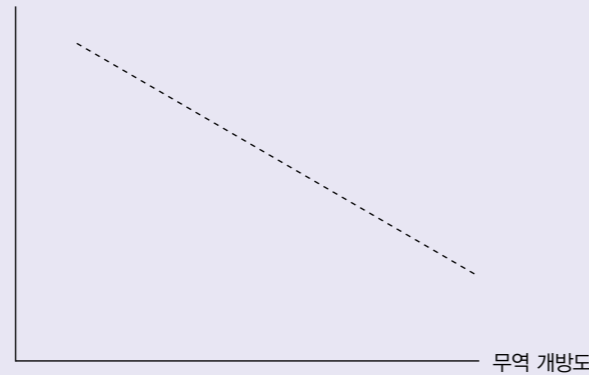
<자료 A>

소득 불균형



<자료 B>

소득 불균형



※참고 사항

- i) 자료 A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개방도와 소득 불균형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 ii) 자료 B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 iii) 무역 개방도는 GDP 대비 무역량(수출+수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 iv) 그림의 점선은 무역 개방도와 소득 불균형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4

아래 <보기>의 현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문제 1]의 두 입장 중 오직 한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보기>

중국 당국이 자국 온라인 매체들에 미국 드라마 상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한국 드라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4년 4월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닷컴 대변인이 "미국 시트콤 '빅뱅이론'과 정치 드라마 '더 굿 와이프', 범죄 드라마 'NCIS', 법정 드라마 '더 프랙티스' 등 4개 드라마를 웹사이트에서 상영해선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자 상대국에서 이를 경계하여 한국의 대중문화 수입을 규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프라임 타임 대에 한국을 겨냥해서 외국 드라마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영화 스크린 쿼터제를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5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해설

모의논술 개요

2015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 대학 논술시험의 전형적인 출제 패턴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출제되었다. 요약형, 평가형, 대안 제시형 등 기존의 유형들을 그대로 따랐으며, 하나의 주제 아래 4개의 문항이 유관성과 차이를 동시에 지니도록 하였다.

이번 모의논술도 우리 학교 과거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출제하였다. 논술 문제의 전체 주제인 '세계화'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3단원 '문화와 사회' 중 5장 '한국문화와 세계화', 6단원 '현대사회와 사회 변동' 중 3장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5단원 '세계시장과 한국 경제' 중 5장 '세계화와 정보화' 등 여러 곳에서 다루지는 것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제시문 1〉

새로운 것에 폭 빠진 사람들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 및 운송 기술의 혁명적 변화 덕분에 말 그대로 우리는 '국경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에 따라 최근 2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는 변화가 최근에 일어난 '세상을 바꾸는' 기술 진보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런 변화에 반대하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가 없는 국경 없는 세계의 도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국경을 넘어 흘러 들어오는 자본과 노동, 상품에 대해 반드시 가해야 할 규제마저 일부 철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오랫동안**, 바람직하지 않았다. 최근의 기술 변화는 100년 전에 있었던 변화만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100년 전의 세계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에 비해 통신과 운송 부분에서의 기술은 훨씬 뒤떨어졌으나 오히려 세계화는 월등히 진전된 상태였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정부들, 특히 힘센 나라 정부들이 자본, 노동,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기술혁명에 사로잡혀 시각이 왜곡될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제시문을 정리하며 읽는 것이 좋다.

① 통신 및 운송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없는 세계가 만들어지자 각국 정부는 외국의 자본과 상품 등에 관한 규제 철폐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② 그러나 그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하지만'을 중심으로 세계화의 요인과 정도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른 저자의 생각이 기술되고 있다.)

③ 세계화는 기술혁명에 의한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각 국가 정부의 정책 결과이다.

〈제시문 2〉

자유무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동안 우리가 채택하려고 노력해 왔던 방법은 다른 나라들과 관세 인하를 위한 상호주의적 협상을 벌이는 것이었다. 내게는 이것이 그릇된 방식으로 보인다. 첫째, 그렇게 하면 일의 진척이 매우 느려질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법이다. 둘째,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조장한다. 그것은 관세가 관세 부과 국가에는 도움이 되고 다른 나라에는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우리가 관세를 인하하면 그것은 마치 좋은 무언가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관세 인하라는 형태로 보답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실제 상황은 그와 전혀 다르다. 우리의 관세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롭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철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면 우리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혜택을 보는 데 다른 나라들의 관세 인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각자의 사적 이익은 서로 부합되는 것이고, 상충하지 않는다. 영국이 19세기에 곡물법을 폐지하였을 때 그랬듯이, 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유무역으로 나아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정치 및 경제적 힘의 엄청난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① 자유무역을 위한 관세인하에 관한 상호주의적 협상은 잘못된 방식이다.

② [잘못된 이유 1] 일의 진척이 느리다.

③ [잘못된 이유 2] 우리의 관세는 다른 나라와 우리 모두에게 해롭다.

④ 다른 나라의 관세 철폐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만이라도 철폐하여 자유무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제시문 3〉

성공을 향한 중국인들의 노력의 결과 (물리적 거리와 재능의 총체적 관계가 변했듯이) '난소 복권(ovarian lottery)'이 바뀌었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30년 전에는 미국 뉴욕 주에 있는 인구 3만의 소도시 포킵시 같은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몸바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근처에서 천재로 태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포킵시를 선택했을 것이다. 평범한 재능이지만 거기서는 운택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평평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든 사업을 시작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물리적 거리보다 재능이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빌 게이츠는 말했다. "지금이라면 포킵시에서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보다 중국에서 천재로 태어나는 걸 택하겠다." 베를린 장벽이 베를린 광장으로 바뀌고 30억 인구가 이 모든 새로운 협력의 수단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과거보다 다섯 배나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얻을 것"이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① 과거에는 운택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큰 선진국에 태어나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했다.

② 지금은 세계가 평평해져서 물리적 거리보다 재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③ (따라서) 지금은 태어난 곳이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재능을 지녔느냐가 중요해졌다

〈제시문 4〉

세계화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고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범위가 전 지구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접촉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만들으로써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부터 완전하게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우려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서구 중심적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가운데 고유한 문화가 소멸하거나 획일화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의 위기』의 저자인 요스트 스미르스는 자유무역의 보편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예술이 처한 위기를 경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나 예술을 경제 논리에 맡겨선 안 된다. 그럴 경우 문화적 획일화가 발생하여 지역 문화를 소멸시키고 개인의 창의성 발휘 기회를 박탈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행복 추구권과 문화적 기본권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의 생산과 배급, 마케팅, 소비 방식 전반이 분산되어야 하며, 지금과 같은 저작권 독점 체제는 달라져야 한다.

- ① '세계화'에 대한 정의
- ② 세계화가 문화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 ③ 문화의 세계화는 서구 중심적 문화로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다.
- ④ 문화적 세계화, 즉 문화적 획일화는 지역 문화의 소멸과 창의성 발휘를 가로막을 것이다.

〈제시문 5〉

당신이 소비할 모든 것을 집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직접 옷을 만들고, 곡식을 키우고, 집을 수리하는 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하면 된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자급자족 시대에 농부들이 실제로 살았던 삶이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대체로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별다른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마이클 조던이 농사짓고, 바느질하는 데 온통 시간을 다 바쳤다면 어땠을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은 주(州) 혹은 개인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여긴다.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도 무모한 짓이다. 애덤 스미스도 1776년에 쓴 『국부론』에서 이 점을 언급하였다.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데 돈이 더 드는 물건이라면 집에서 만들려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분별 있는 가장이 라면 새겨들어야 할 격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외국에서 더 저렴하게 생산하여 우리에게 공급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산업의 산출물을 주고 그것을 사오는 편이 현명하다.

- ① 상호 교류 없이 자급자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다.
- ② 국가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 ③ (비교 우위에 따른) 자유교역이 현명한 판단이다.

문제 풀이 과정

〈Step 1〉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

- 각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되 '세계화'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문제 2]~[문제 4] 풀이를 위해 세계화에 관한 각 입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들에 주목하면서 제시문을 정리해야 한다.

〈Step 2〉 각 제시문을 세계화와 관련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는 단계

- 각 제시문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세계화를 바라보는 입장들을 파악할 수 있다.
- 〈제시문 2〉·〈제시문 3〉·〈제시문 5〉는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며,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부정적 입장이다.

〈Step 3〉 세계화와 관련된 두 입장에 따라 각 제시문을 요약하는 단계

- 〈Step 1〉에서 정리한 내용을 세계화와 관련된 두 입장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답안을 완성한다.

긍정적 입장	제시문 2	관세 인하 혹은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이 상호주의적 협상 없이도 정치·경제적 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제시문 3	(문화적 세계화에 따라)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시문 5	주(州)나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교역 개방을 통해 필요한 상품 교환이 현명하다.
부정적 입장	제시문 1	인터넷과 같은 통신 및 운송 기술의 혁명적 변화로 인해 세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며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다
	제시문 4	경제 논리에 따른 문화 세계화는 문화 획일화, 지역 문화의 소멸, 개인의 창의성 약화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예시 답안

문제의 제시문들은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시문 2〉·〈제시문 3〉·〈제시문 5〉는 긍정적 입장이며,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정적 입장으로서, 〈제시문 2〉는 관세 인하 혹은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이 상호주의적 협상 없이도 정치, 경제적 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제시문 3〉은 (문화적 세계화에 따라)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주(州)나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교역 개방을 통한 필요한 상품들의 교환이 현명하다는 것이 〈제시문 5〉의 논지이다.

반면에 부정적 입장으로서, 〈제시문 1〉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 및 운송 기술의 혁명적 변화로 인해 세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며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라고 말한다. 〈제시문 4〉는 경제 논리에 따른 문화 세계화는 문화 획일화, 지역 문화의 소멸, 개인의 창의성 약화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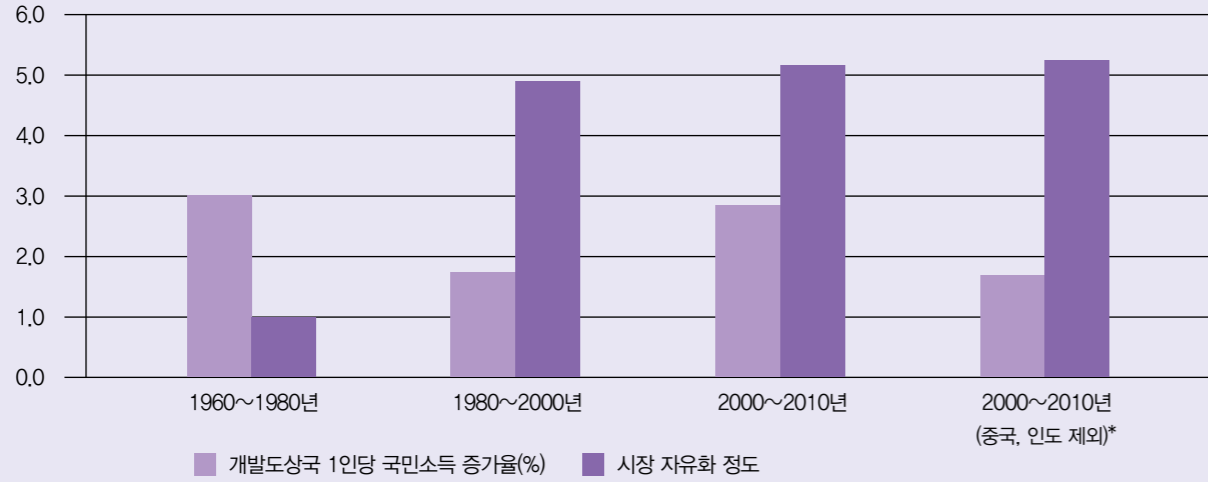
문제 풀이의 관건

- ① 세계화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② 제시문들을 앞서 찾은 두 입장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하고 요약해야 한다. 이때 요약한 내용에서 두 입장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문제 2

아래 <자료>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비판하시오.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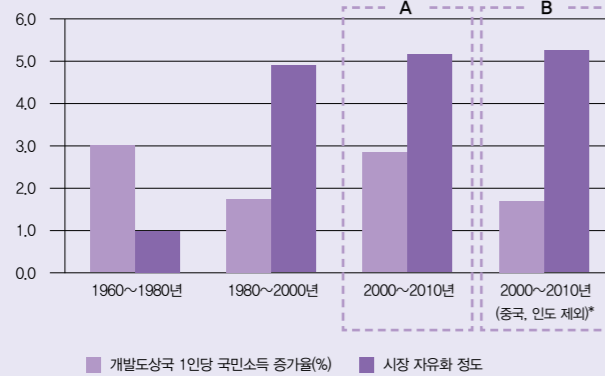
* 중국과 인도는 이 시기 시장 자유화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음.

문제 풀이의 관건

- ① <자료>를 각주에 유념하여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 ② <자료>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비판하라고 했으므로 <자료>가 두 입장 중 어느 입장에 대한 비판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문제 풀이 과정

<자료>



{Step 1} 자료 해석 단계

- '중국과 인도는 이 시기(2000~2010년) 시장 자유화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각주에 주목하면 세계화를 평가하는 데 'A'는 불필요한 자료이고 오직 'B'만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자료 해석에서 각주는 매우 중요하다.
- 개발도상국에서 1960~1980년에 비해 1980~2000년은 시장 자유화 정도는 상승했으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0~2010년 역시 이와 유사하다.

{Step 2} <자료>를 [문제 1]의 두 입장에 적용하는 단계

- 시장 자유화 정도와 세계화 정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 개발도상국에서(중국과 인도 제외) 시장 자유화 정도가 진행될수록 국민소득 증가율이 감소했다. 이는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이다.

예시 답안

<자료>는 개발도상국의 시장 자유화 정도와 평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의 시기별 연관성을 도표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960~1980년에 비해 시장 자유화가 크게 진전된 1980~2000년 기간에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00~2010년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시장 자유화 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중국과 인도를 포함했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현상일 뿐이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국가들은 2000~2010년 동안 시장 자유화 정도는 약간 상승했으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시장 자유화가 개발도상국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를 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 도표는 시장 자유화로 대표되는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말해 줌으로써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옹호하는 자료이다.

문제 3

<자료 A>와 <자료 B>를 아래의 '참고 사항'에 근거하여 상세히 해석하고, 그 결과를 모두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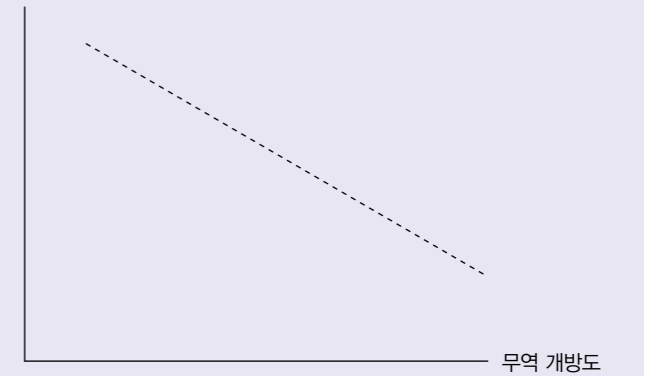
<자료 A>

소득 불균형



<자료 B>

소득 불균형



※참고 사항

- i) 자료 A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개방도와 소득 불균형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 ii) 자료 B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 iii) 무역 개방도는 GDP 대비 무역량(수출+수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 iv) 그림의 점선은 무역 개방도와 소득 불균형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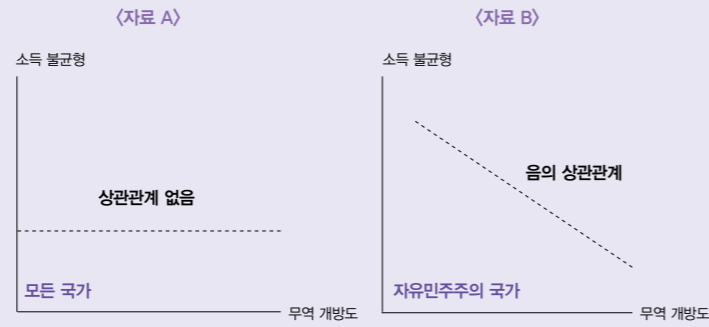
문제 풀이의 관건

- ① <자료 A>와 <자료 B>의 차이를 '참고 사항'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②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세계화에 해당함을 알아야 한다.
- ③ <자료 A, B>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문제 풀이 과정

{Step 1} 자료 해석 단계

- <자료 A>는 일반적으로 무역 개방도와 소득 불균형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 준다. 즉 무역 개방도가 높은 나라나 낮은 나라나 소득 불균형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료 B>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무역 개방도와 소득 불균형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무역 개방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불균형이 덜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ep 2} 자료를 [문제 1]의 두 입장에 적용하는 단계

-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정치적 세계화가 진전될 경우, 무역 개방도로 나타나는 경제적 세계화가 소득 분배를 오히려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세계화의 일반적 폐해로 알려진 소득 불균형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수반될 경우 경제적 세계화가 소득 불균형을 오히려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따라서 <자료 A>와 <자료 B>를 통해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

예시 답안

<자료 A>는 모든 국가를, <자료 B>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무역 개방도가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자료 A>에 따르면 GDP 대비 무역량의 증가가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한시켜 본 <자료 B>의 경우 무역 개방도의 증가가 소득 불균형을 오히려 완화시킨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정치적 세계화가 진전될 경우, 무역 개방도로 나타나는 경제적 세계화가 소득 분배를 오히려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세계화의 일반적 폐해로 알려진 소득 불균형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수반될 경우 경제적 세계화가 소득 불균형을 오히려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자료 A>와 <자료 B>에 나타난 현상은 [문제 1]에서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옹호해 준다.

문제 4

아래 <보기>의 현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문제 1]의 두 입장 중 오직 한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보기>

중국 당국이 자국 온라인 매체들에 미국 드라마 상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한국 드라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4년 4월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닷컴 대변인이 “미국 시트콤 ‘빅뱅이론’과 정치 드라마 ‘더 굿 와이프’, 범죄 드라마 ‘NCIS’, 법정 드라마 ‘더 프랙티스’ 등 4개 드라마를 웹사이트에서 상영해선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자 상대국에서 이를 경계하여 한국의 대중문화 수입을 규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프라임 타임 대에 한국을 겨냥해서 외국 드라마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영화 스크린 쿼터제를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 풀이의 관건

- ① 문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②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 중 어느 입장에서 글을 쓸지 결정해야 한다.
- ③ 대응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문제 풀이 과정

{Step 1} 문제 상황과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

- 문제 상황 : 중국이 한국의 대중문화 수입을 규제하려 한다.
-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 : 문화 세계화에 따른 문화 제국주의로부터 자국 문화 보호(제시문 4) 참고

{Step 2}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각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단계

-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의 경우) 문화적 획일화 현상이 외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문화의 수출 일반도 정책을 수정하고, 평등한 문화 교류 방안을 마련함.
-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의 경우) 문화적 세계화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예컨대 중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포용하는 문화 상품의 현지화 전략과 같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이 필요함.

예시 답안

1.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둘 경우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화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문화 획일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미국 할리우드 문화가 제3세계에 수출되어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축출하고 대신하는 것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현상이 한류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다. 한류 역시 대중문화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등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국가에 유포되어 그들의 문화를 종속시키고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고 상대국의 문화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책으로는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에의 일방적인 침투를 지양하고 쌍방향 교류와 같은 상호 호혜적인 문화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류가 과거 미국 중심의 서구문화가 일방적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났던 문화 제국주의적 모습과 유사하게, 문화산업 정책 중심의 결과물로서 단순한 상업적 이익과 민족적 우월감을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상대국의 문화와 공존하면서 한류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둘 경우

문화의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한류의 세계화를 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 한류의 경우, 문화산업의 경쟁력이라는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봐야 볼 수 있다. 문화 생산품도 교역 환경이나 경쟁력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입국과 수출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도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 문화가 득세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대중문화 경쟁력이 더 높아져서 우위가 뒤바뀐 점을 들 수 있다.

이 입장에서도 앞서 제시한 것과 똑같은 우리의 대응책(즉 일방적 침투 지양, 쌍방향 교류, 상호 호혜성, 공존 지향 등)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교역을 통해 문화 융합, 즉 모든 국가들이 더욱 세련되고 경쟁력 있는 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한류가 서양 문화와 한국 고유의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재탄생한 하이브리드(혼종) 문화라는 점을 예로 들 수도 있다.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1) 문제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5〉는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5점)

〈제시문 1〉

맹자께서 양양왕을 만나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멀리서 보니 임금 같지도 않고 가까이 가도 두려워할 바가 없었는데, 문득 문기를 ‘어떻게 하면 천하(天下)가 안정되겠습니까?’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누가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가 통일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누가 능히 그를 따를까요?’라고 문기에 대답하기를 ‘천하에 그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왕께서는 저 썩을 아십니까? 7, 8월 사이에 날이 가물면 썩이 마르다가 하늘이 뭉게구름을 만들어 짙은 비를 내리면 썩이 힘차게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되면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하의 임금들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거늘, 만약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목을 빼고 우러러 볼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을 것이니, 백성들이 힘차게 일어나 돌아옴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제시문 2〉

목적론적 윤리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음을 전제하고서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행복과 쾌락 등 다양한 인간 삶의 목적이 존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목적을 성취해 내는 삶이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도덕적인 것이 그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임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살면서 좋다고 여기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된다. 설사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윤리 규범을 어기게 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만 있다면, 예컨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요구된다. 이와 같은 목적론적 윤리는 이성의 보편타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결과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제시문 3〉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와는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행해져야 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고집하는 군주는 자신의 국가를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선하게만 행동하려는 사람은 전혀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패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권력을 보존코자 하는 군주는 비록 선하지 않은 수단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 4〉

‘미션’은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18세기 중반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한 예수회 신부들이다. 원주민 과라니 부족의 마음을 얻은 가브리엘 신부와 동료들은 밀림 속에 교회를 세우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175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합의한 새로운 영토 분계선에 따라 과라니족 마을은 포르투갈 식민지로 편입된다. 교황청은 이에 불응하는 과라니족과 신부들을 설득하고자 주교를 파견한다. 그러나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주교의 명령과 달리 신부들은 원주민들을 돕기로 결정한다. 무력으로 원주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한 신부(로드리고)에게 가브리엘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신부답게 원주민을 도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면 당신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배신하는 것이요, 당신은 하느님께 삶을 의탁하지 않았소? 하느님은 사랑이란 말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는 칼을 차고 와서 전투에 나가 죽게 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한다. 가브리엘 신부는 그 요청을 거절하며 말한다. “그럴 수 없소. 만약 당신이 옳다면, 당신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만일 그르다면, 내 축복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무력이 정당하다면, 이 세상에 사랑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요, 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소. 그래서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가 없소.”

〈제시문 5〉

저(라스폴리니코프)는 ‘비범한’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뛰어넘어 어떤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신념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말입니다. 제 생각에 케플러나 뉴턴의 발견에 방해가 되거나 연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몇몇 혹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견과 연구를 성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뉴턴은 자기 발견을 전 인류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그 방해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 2

[문제 1]의 대립 구도하에서 <보기 1>의 갈등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서술하시오. (25점)

<보기 1>

“전하, 뜻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길 터인데, 이 항복 문서가 과연 살자는 문서이옵니까?”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상헌이 다시 임금을 다그쳤다. “전하, 이제 칸을 황극으로 칭하였으니 문서가 적에게 가면 전하는 칸의 신하가 되고, 신들은 칸의 말잡이가 되며, 백성들은 칸의 종이 되는 것이옵니까?”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상헌이 다시 말했다. “적이 비록 성을 에워쌌다 하나 아직도 고을마다 백성들이 살고 또 의지할 만한 성벽이 있으며, 전하의 군병들이 죽기로 성첩(城堞)¹⁾을 지키고 있으니 어찌 회복할 길이 없겠습니까. 전하, 명길을 멀리 내치시고 근본에 기대어 살 길을 열어 나가소서.”

최명길이 말했다. “상헌은 제 자신에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적들이 성벽을 넘어 들어오면 세상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운데, 상헌이 말하는 근본은 태평한 세월의 것이옵니다. 세상이 모두 불타고 무너진 풀밭에도 아름다운 꽃은 피어날 터인데, 그 꽃은 반드시 상헌의 녀일 것이옵니다. 상헌은 과연 백이(伯夷)²⁾이오나, 신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초라한 세상에서 만고의 역적이 되고자 하옵니다. 전하의 성단(聖斷)³⁾으로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 주소서.”

김상헌이 두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소리쳤다. “전하, 명길의 문서는 글이 아니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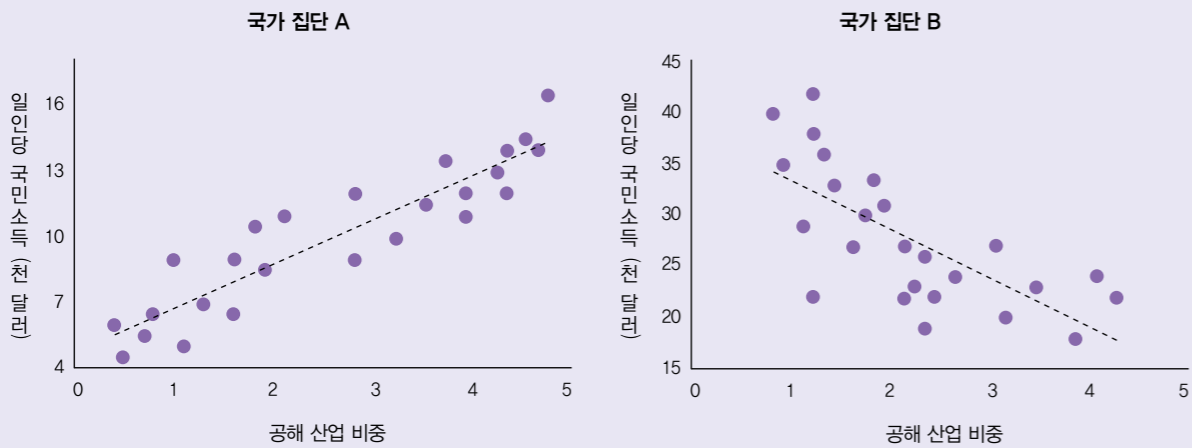
최명길이 김상헌의 말을 막았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옵고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밝고 걸어가셔야 할 길바닥이옵니다.”

- 1) 성첩(城堞): 성벽 위에 낮게 쌓아 총알과 화살을 막는 담.
- 2) 백이(伯夷): 지조를 지킨 중국의 전설적인 현인.
- 3) 성단(聖斷): 임금의 결단.

문제 3

<자료>가 보여 주는 두 현상을 [문제 1]의 입장(들)과 연관시켜 각각 설명하시오. (25점)

<자료> 일인당 국민소득과 공해 산업 비중



※ 공해 산업 비중은 총생산량 대비 공해 산업 생산량의 비중을 지수화한 것임(0=낮음, 5=높음).

문제 4

[문제 1]의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 사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만 택하여 논술하시오. 그리고 <보기 2>를 참고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25점)

<보기 2>

많은 국가에서 불법이었던 복권 사업이 언젠가부터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고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에는 2개의 주에서만 복권 사업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40개 주와 워싱턴 D. C.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4년 미국 전역의 복권 판매액은 480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1985년의 90억 달러에 비하면 다섯 배가 늘어난 수치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복권 수입이 주 정부 예산의 13%를 차지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복권 사업은 세금 인상 없이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정부 수입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이다. 복권 구매는 강제야 아닌 개인의 선택이자 인기 있는 오락 수단이며, 복권을 파는 판매소나 홍보하는 광고 회사 등에게도 합법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복권 구매는 순수하게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복권 사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는 즉석 게임(예를 들어, 스크래치 복권)은 일반인, 특히 저소득층 사람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유혹이다. 실제로 그러한 복권 구매자들의 상당수가 도박 중독에 빠지고 있으며, 그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1) 문제 해설

출제 의도

2014학년도 논술시험(인문 1)의 주제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이다. 이 주제는 우리 삶의 현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정치, 도덕,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이 주제를 통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밀려나거나 망각되기 쉬운 수단(행위)의 도덕성이나 가치에 대해 성찰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번 논술시험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를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험생이 대부분 인문 계열 지원자임을 감안하여 인문학적 성격의 문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번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의 2장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과 3장 '서양 윤리 사상' 그리고 『법과 정치』의 4장 '정치권력과 법치주의'에서 이끌어 내었으며, <제시문> 및 <보기>도 교과서에 게재되거나 언급된 교전 및 현대문학 작품, 영화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인문 논술을 지향하였다.

문제 1

[문제 1]은 요약형 문항으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담은 5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1, 4>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제시문 2, 3, 5>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답안은 먼저 이 제시문들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각의 제시문이 왜 이렇게 분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요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모범 답안 골격

1.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2>의 요지: 목적이 좋은 것이라면 윤리 규범을 어기는 수단을 사용해도 괜찮다.

<제시문 3>의 요지: 권력을 보존하고자 하는 군주는 필요하면 불법적인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제시문 5>의 요지: '비범한' 사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2.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제시문 1>의 요지: 천하를 안정시키는 목적에 사람을 죽이는 나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 4>의 요지: 자신들을 지키려는 원주민들을 도우려는 좋은 목적이라도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 2

[문제 2]는 서술형 문항으로, 이번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새롭게 도입된 인문형 논술 문항이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전체 주제를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의 한 부분을 통해 살펴보는 문제이다.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독해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문제 1]의 대립 구도', 즉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 틀 아래 <보기 1>의 갈등 상황에서 김상헌과 최명길의 목적이 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각적인 서술', 즉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모범 답안 골격

1. 목적을 (백성의) 목숨 보호로 설정할 경우

① 최명길의 입장: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현세의 목숨 또는 화평을 위하여(목적) 항복이라는 치욕적 수단을 택했다. (백성의) 목숨 보호라는 목적에 의해 치욕적인 항복이라는 수단은 정당화된다.

② 김상헌의 입장: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백성의) 목숨을 보호한다(목적) 하더라도 국가의 근본(자존)을 무너뜨리는 항복(수단)을 해서는 안 된다.

2. 목적을 나라 수호 또는 대의명분으로 설정할 경우

① 김상헌의 입장: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나라 수호 또는 대의명분을 목적으로 삼아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최명길의 입장: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국가의 대의명분을 지키는 목적을 위해 (백성의) 목숨을 담보하는 결사 항전(폭력)이라는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문제 3

[문제 3]은 설명형 문항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수단의 정당성 여부를 특정한 경제 현상과 연관시켜 고찰하는 문제이다. <자료>에 제시된 두 그림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라는 목적과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인 공해 산업 간의 일정한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들의 특징을 반드시 [문제 1]의 상반된 두 입장과 연관시켜 설명하여야 한다.

모범 답안 골격

1. '국가 집단 A'에서 나타난 현상

공해 산업 비중과 일인당 국민소득이 대체적으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공해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높은 평균 소득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평균 국민소득 증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해 산업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국가 집단 B'에서 나타난 현상

공해 산업 비중과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반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공해 산업의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높은 평균 국민소득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평균 국민소득 증대라는 목적을 위해서 공해 산업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즉,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좋은 수단이 무엇인지가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2) 문제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5〉는 인종·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바람직한 정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두 가지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핵심 내용을 기술하시오. (30점)

〈제시문 1〉

과거 경험이 말해 주듯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흡수·동화되는 경우가 있다. 원래 상대적으로 열등하든가 뒤 떨어진 민족이라면 더 우월한 민족에게 흡수·동화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된다. 나바르 지역의 바스크 민족은 프랑스 민족의 일원이 되어 프랑스 시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향유하고 프랑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이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에 거슬러 자신들의 척박한 땅에서 과거의 반(半)야만적인 삶을 되풀이하는 것에 비해, 선진 문명국의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분명 그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었다. 웨일스 사람들 또는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사람들이 온전한 영국 시민이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 2〉

민주주의에서는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시민들이 결정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보다 더 우월한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은 만장일치에 의해 해결되는 예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공적인 결정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기게 되고 일부 사람들은 지게 된다. 다수결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결정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면서 집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하고도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다수결 원리는 두 가지 다른 원칙들, 즉 '개인의 평등 원칙'과 '개인의 자율성 존중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다수 지배는 모든 개인들을 평등한 존재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수적으로 다수인 사람들의 결정이 가장 큰 무게를 갖게 된다. 반대로, 소수가 결정권을 갖는 것은 다수의 표가 갖는 상대적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들이 평등하다고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인종·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민주 사회의 시민들은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시문 3〉

사회 내 문화적 소수자들은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기 쉽다.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대다수가 경제적 빈곤층에 속하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직장과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역시 학교에서 낮은 학업 성취와 집단 따돌림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 불안 요

인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적 필요, 이주자들의 사회적 성취 욕구 등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다문화 가정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며, 우리는 다른 문화를 관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제시문 4〉

민족국가는 가장 바람직한 최고의 정치조직 형태이다. 민족국가의 가장 큰 장점은 문화적 응집과 정치적 통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공동의 문화나 인종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치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때 민족성과 시민성은 통합된다. 한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근대의 민족국가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소집단들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민주주의는 이런 노력을 정당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이념적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이 민족국가에서 정치적 주권은 바로 민족에게 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통치가 '민족적 이익'에 맞게 '국민에 의해' 혹은 '국민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하려는 힘은 자연적인 것이고 따라서 불가항력이라 믿는 이유이며, 하나의 민족국가를 지향해 가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믿는 이유이다.

〈제시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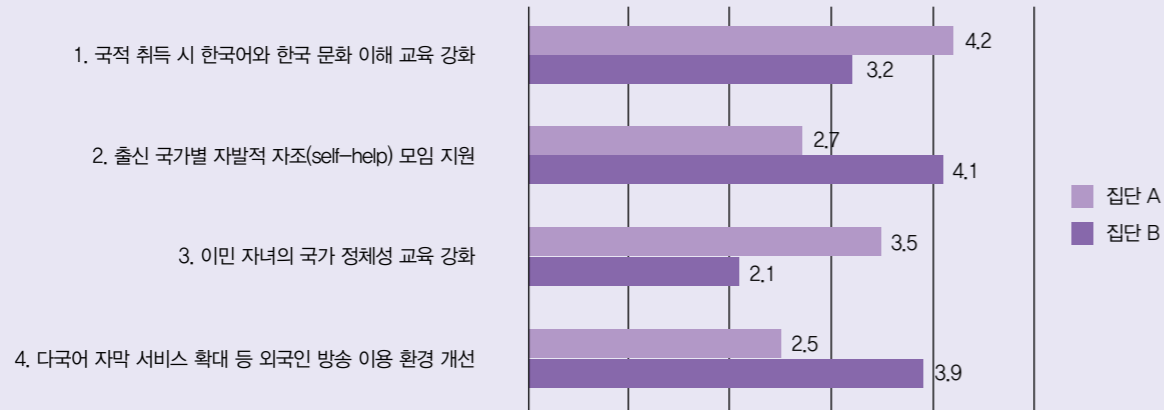
다양성은 다수의 폭정을 방지함으로써 자유를 보호한다. 소집단은 다양성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통해 보호된다. 이런 소집단들은 다수가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것은 소집단이 다수가 부과하는 획일적인 목표나 행위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자유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력과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시민권에 의해 보호될 경우 다양성은 차이와 자유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다양성은 현재의 사회 상태에 대한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주변부에 있는 소집단들은 주류 집단이 추구해 온 가치와 정책의 편파성을 비판함으로써 기존의 부당한 규범과 정책들을 개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변부에 있는 소집단들은 생생한 토론과 보이콧 그리고 저항 등이 수행되는 공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유지한다. 주류 집단의 장기적이고 일방적인 지배에 대한 소집단들의 비판은 소집단 구성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문제 2

자료에 나타난 집단 A와 집단 B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관련지어 비교 설명하십시오. (20점)

〈자료〉 외국인 관련 정책들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한 설문 조사 회사는 집단 A에 속한 100명의 응답자와 집단 B에 속한 100명의 응답자에게 다문화 정책들에 대한 지지 정도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정책에 대하여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1점)’, ‘지지하지 않는다(2점)’, ‘그저 그렇다(3점)’, ‘지지한다(4점)’, ‘전적으로 지지한다(5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들의 지지 정도를 표시하였다(아래 그림에 제시된 수치는 각 집단의 평균 지지 점수임).



문제 3

〈표 1〉에 제시된 정부 정책의 변화 추이를 [문제 1]의 입장(들)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이러한 추세가 〈표 2〉에 나타난 외국인들의 차별 경험 추세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서술하십시오. (25점)

〈표 1〉 외국인 관련 예산 추이(단위: %)

정책 목표	세부 정책	2009년	2010년	2011년
외국인 유입 및 관리	해외 인력 유치	46.5	40.7	34.8
	불법 체류 감시·감독	8.5	1.7	0.9
	소계	55.0	42.4	35.7
다문화 지원	생활 편의 제공 및 가족 지원	39.9	52.1	58.9
	외국인 인권 보호	2.4	2.5	2.4
	내국인 다문화 이해 증진	2.7	3.0	3.0
	소계	45.0	57.6	64.3
전체 합계		100	100	100

〈표 2〉 국내 체류 외국인의 차별 경험(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심하게 차별받았다	6.5	6.8	7.2
차별받았다	34.0	35.2	38.4
별로 차별받지 않았다	33.8	32.5	30.3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25.7	25.5	24.1
합계	100	100	100

문제 4

〈보기〉는 프랑스의 두 지도층 인사가 자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벌인 최근의 논쟁이다. 한국도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조만간 서구의 국가들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기〉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비하여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술하십시오. (25점)

〈보기〉

(가) “다문화 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 신경을 썼지만, 정작 이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 만일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오고 싶다면 단일한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그것은 민족 공동체이다. 이것이 싫다면 우리 나라에서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

(나)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난센스다. 우리 나라에 사는 이민자들은 온전히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다. 하지만 그들은 인종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여전히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사회 불안과 경제적 위기를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바로 차별의 증거다.”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2) 문제 해설

출제 의도

수험 대상자가 사회과학 계열 지원 학생들인 점과 고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대립적인 두 입장이 나타난 다양한 장르의 제시문들을 정확히 분류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 및 점차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이 두 입장이 지닌 현실 부합성과 규범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정치 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주류 문화 중심의 동화주의적 입장과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집단들의 상호 인정과 존중 원칙(혹은 규범)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는 다문화주의 입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적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자료와 도표 등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경우 학생이 어느 입장을 지지해야 하는지는 평가 요소가 아니다. 다만 4번 문제에서는 그동안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구해 온 유럽 국가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논술하라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특정한 입장을 택한 수험생에 별점을 주거나 가산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합당한 근거를 들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 1

인종·문화적 다양성이 커지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 정치 공동체(혹은 국가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두 가지 대립적인 입장 및 그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의 형태 혹은 정치 이념을 분류하고, 각 입장의 핵심 내용을 통합시켜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즉, 동화주의 입장(제시문 1, 2, 4)과 다문화주의 입장(제시문 3, 5)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류하였으며, 각 입장을 얼마나 정확히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모범 답안 골격

1. 동화주의 입장(유형, 정책, 모델)

동화주의는 문화적 소수자들을 주류 문화에 흡수·동화시키는 통합 방식으로, 다수결 민주주의와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민족 국가 형성 프로젝트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제시문 1〉 : 열등한 민족이 선진 민족에게 흡수·동화되는 것은 열등 민족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동화주의적 통합은 바람직하다.

〈제시문 2〉 : 다수결 민주주의는 정당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으로서 주류 문화 중심의 동화주의적 통합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제시문 4〉 : 민족주의자들은 문화적 응집과 정치 통합이 결합된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노력만이 의미 있는 정치 공동체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본다.

2. 다문화주의 입장(유형, 정책, 모델)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소수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존중하는 통합 방식으로,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제시문 3〉 :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문화적 소수자들은 사회 불안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들을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포용해야 한다.

〈제시문 5〉 : 정부의 노력과 헌법적 보호에 힘입어 다양한 소집단들은 자유의 신장에 기여하고, 주류 집단이 추구해 온 부당한 가치나 정책의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문제 2

[문제 2]는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동화주의의 입장과 다문화주의의 입장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지표와 동화주의의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제시한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어떤 집단이 다문화주의의 의식 또는 동화주의의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해석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모범 답안 골격

- 답안의 도입 : 자료에 제시된 정책들은 [문제 1]에 나타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두 입장 즉, 동화주의의 입장 또는 다문화주의의 입장을 각각 반영하고 있다.
- 자료에서 제시된 정책 중, '1. 국적 취득 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강화'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주류 문화로의 편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동화주의적 성격의 정책이다. '3. 이민 자녀의 국가 정체성 교육 강화' 또한 단일한 정치 공동체의 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화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2. 출신 국가별 자발적 자조 모임 지원'은 외국인들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보존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4. 다국어 자막 서비스 확대 등 외국인 방송 이용 환경 개선'은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하고 이질적 문화의 형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 동화주의적 정책들의 경우(즉, 1번과 3번 정책), 집단 A의 평균 지지 점수가 집단 B의 평균 지지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집단 A는 동화주의적 인식을 상대적으로 높게 가지고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문화주의적 정책들(즉, 2번과 4번 정책)의 경우, 집단 B의 평균 지지 점수가 집단 A의 평균 지지 점수보다 더 높으므로 집단 B는 다문화주의적 의식을 상대적으로 높게 가지고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문제 3

정부의 외국인 관련 (예산) 정책의 흐름을 읽어 내고, 그 효과를 외국인의 차별 경험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비판적 분석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특히 정부의 다문화 (예산) 정책이 지난 3년간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여전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다문화 (예산) 정책 중에서도 차별 방지와 연관되는 예산 비중은 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차별이 여전하다는 해석도 제시해야 한다.

모범 답안 골격

- 〈표 1〉은 정부의 외국인 관련 예산 중 '외국인 유입 및 관리' 예산 비율은 줄어든 반면, '다문화 지원' 예산 비율은 대폭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비(非)다문화주의(혹은 동화주의)에서 좀 더 다문화주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유입 및 관리' 항목을 동화주의의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나 이는 채점의 포인트는 아니다.)

- 그러나 <표 2>는 외국인들의 차별 경험('심하게 차별받았다', '차별받았다')이 여전하거나 오히려 심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정책과 현실 간에 괴리가 있음을(혹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외국인들의 높은 차별 경험은 정부의 외국인 관련 예산 중 '외국인 인권 보호', '내국인 다문화 이해 증진' 관련 예산 비중이 여전히 낮은 현실과 연관이 있다.

문제 4

[문제 4]는 <보기>에 담긴 다문화 정책에 대한 논쟁에서 드러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성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중요한 사회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가)는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서유럽의 여러 나라가 펼친 다문화 사회 지향의 정치적 좌절을 대변한다. 이러한 입장은 프랑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적 단위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다문화 사회 지향이 프랑스라는 한 국가 단위의 정체성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보기>의 (나)는 프랑스 한 학자의 발언으로 최근의 사회 불안과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배타적 민족주의를 경계하며 인종·문화적 차별을 극복하고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 프랑스의 사회 불안과 경제적 위기는 다문화 정책이나 이민자들의 탓이 아니며,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모범 답안 골격

모범 답안은 다음의 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① <보기>의 두 인용문이 각각 어떤 입장인지, 각 입장이 반대 입장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 ② 자신의 입장과 그에 근거한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 제시
- ③ 자신의 입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 또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와 대안 제시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3) 문제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5〉는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접근 방법을 보여 준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5점)

〈제시문 1〉

티베트에는 죽은 사람의 살을 독수리의 먹이로 제공하는 조장(鳥葬)이 있는데, 그들은 이를 천장(天葬)이라 하기도 한다. 조장이란 죽은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하는 장례법이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티베트의 자연환경을 알면 그렇지도 않다. 추위에 언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땅에 묻어 봐야 건조해서 썩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주검을 화장하려 해도 땀나무를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중략) 이처럼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티베트의 조장 풍습을 티베트의 환경을 고려해서 파악하면 이해할 수 있듯이, 다른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의 문화라도 그것은 그 사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 온 역사적인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이며, 따라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제시문 2〉

한 나라의 정당 제도가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와 그 나라가 어떤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부 구성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의원내각제하의 양당제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제1당의 자리를 서로 바꿔 가면서 한 정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여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반면 다당제에서는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권을 위한 정당 간 연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당 제도와 정부 형태가 정부 구성 방식을 결정한다는 ‘일반 법칙(covering law)’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

〈제시문 3〉

사회과학자가 다루는 사회 현상은 그 관찰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회는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된(constructed)’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사회과학자들이 다루는 대상은 일반인들에 의해 부여된 의미의 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행위가 갖는 주관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떠나서는 사회에 대해 무언가를 서술할 수 없다.

〈제시문 4〉

몇 년 전까지 나는 「네이처」의 편집자로 일했다. 그때 내 책상으로 배달된 논문 중에는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수학적 규칙성을 인간 세상에서도 찾아내려는 진지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 연구자들은 물리학의 방법으로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때 이후로 ‘사회물리학(social physics)’이라고 할 만한 연구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우리는 지금 사회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할 만하다. 인간 세상에 적용되는 엄밀한 ‘법칙’을 찾는 일은 아직 멀었는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인간 세상에서도 법칙에 가까운 규칙성들을 실증적으로 발견해 가고 있다. 이러한 규칙성이 개인의 자유의지와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자유로운 개인이고 각자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데도 그 행동의 총합은 예측 가능한 것이다.

〈제시문 5〉

임신중절 합법화의 가장 극적인 결과는 바로 임신중절이 범죄에 미친 영향일 것이다. 임신중절 허용의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임신중절이 미국의 모든 주에서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었던 다섯 개의 주를 대상으로 범죄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다. 다른 주보다 먼저 임신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된 5개 주에서는 다른 주에 비해 일찍부터 범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단지 우연이었을 수도 있다. 임신중절과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살펴볼 가치가 있는 요인 중 하나는 각 주의 임신중절율과 범죄율 사이의 상관관계다. 1985년 이래로 높은 임신중절율을 보인 주들은 임신중절율이 낮은 주에 비해 약 30% 큰 범죄율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의 연구에서도 임신중절 허용과 범죄율 사이에 비슷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문제 2

〈보기 1〉의 설명을 토대로 〈표〉에 제시된 자료에서 연구자가 내릴 결론을 밝히고, [문제 1]에 제시된 두 입장 중 하나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론 도출 방법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25점)

〈보기 1〉

한 연구자는 사람들이 집단에서 타인의 영향을 받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다른 7명과 함께 시각 판단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아래 예와 같이 기준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을 찾아내는 유형의 과제를 12차례 풀었다. 이 예에서 정답은 'c'이며, 보통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도 틀리지 않을 만큼 쉬운 과제였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반원으로 둘러앉아 차례대로 답을 말하도록 했는데, 사실 진짜 참가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가짜 참가자였다. 그리고 진짜 참가자는 마지막에 대답하도록 사전에 자리를 배열해 두었다. 실험이 시작되면 어떤 경우에는 앞의 가짜 참가자 7명 모두 'a'가 답이라고 말했다(7인 만장일치). 다른 경우에는 앞의 참가자 7명 가운데 6명은 'a'가 답이라고 말한 반면, 나머지 한 명은 정답을 말했다(6:1 분리). 이 실험에서 알고보고자 한 것은 이 상황에서 진짜 참가자인 8번째 사람이 어떤 답을 하는지였다. 실험의 결과는 〈표〉와 같다.



〈표〉

	동조율(%) ¹⁾											
	시행1	시행2	시행3	시행4	시행5	시행6	시행7	시행8	시행9	시행10	시행11	시행12
7인 만장일치	17	35	25	55	38	44	36	37	36	51	25	41
6:1 분리	2	2	14	18	2	16	1	7	9	14	1	20

1) 동조율(%) : 296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각 시행에서 관찰된 동조율

문제 3

〈보기 2〉와 〈보기 3〉에 제시된 주장을 [문제 1]의 제시문과 입장(들)을 활용하여 정당화하시오. (25점)

〈보기 2〉

연구자 A는 복지 수당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복지 수당이 실제 생활비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 수당 수혜자들이 정부를 속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그는 다른 지역에서도 자신이 조사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복지 수당이 실제 생활비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인터뷰한 대상이 아닌 다른 복지 수당 수혜자들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기 3〉

연구자 B는 복지 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복지 수당 수혜자들이 개인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가족끼리 서로 식품과 의류를 교환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를 알아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이 해당 지역에서 관찰되는 행동을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한 행동이 발견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문제 4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책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문제 1]에 제시된 두 접근 방법 중 어느 편이 더 적절한 선택인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5점)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3) 문제 해설

출제 의도

이번 논술시험(인문 3)의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1단원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문화적 현상을 탐구할 때 실증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의미 해석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적절할런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중점 평가 영역과 관련시켜 4문제를 출제하였는데, 문제의 형식은 우리 학교가 그동안 제시해 온 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번 문제는 제시문의 논지를 입장별로 구분하고 핵심 논지를 요약하는 능력, 2번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3번 문제는 제시문의 입장과 연관 지워 <보기>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해설하는 능력, 4번 문제는 주어진 현실 정책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수험생 자신의 평가적 견해를 논증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논술의 주제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다른 입장을 대비시킨 것이지만, 본 논술시험에서는 수험생의 개인적 입장이 어떤 쪽을 더 지지하는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즉 실증주의(주로 양적 방법이 중심이 됨)와 해석주의(주로 질적 방법이 중심이 됨)의 비교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 채점 기준이 아니며,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들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문제 1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이다.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과 관련된 5개의 제시문(실증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해당되는 3개의 제시문과 해석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해당되는 2개의 제시문)을 제시한 후, 이를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야 한다.

- ※ 실증적 방법 :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사회 현상에서의 일반 법칙이나 규칙성을 실증적으로 찾아내는 방법
- 해석적 방법 : 자연현상과 다르게,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적 환경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개인들의 행동의 이유를 해석하는 방법

모범 답안 골격

1. 해석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다르게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된 현상이므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인간의 행위가 갖는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접근 방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시문 1> : 조장(鳥葬)과 같이 외부인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제시문 3> : 사회 현상은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인간 행위의 주관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2. 실증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

사회과학에서도 자연과학과 유사한 규칙성과 법칙이 존재하므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성을 실증적으로 발견하고 일반화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일반 법칙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접근 방법이다.

<제시문 2> : 정당 제도, 정부 형태와 정부 구성 방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드러나는 일반 법칙이다.

<제시문 4> : 사회과학에서도 자연과학과 유사한 규칙성과 법칙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규칙성을 실증적으로 발견하여 사회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제시문 5> : 임신중절 합법화와 범죄율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다수 국가에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발견된다는 사실로부터 일반화할 수 있다.

문제 2

<보기 1>을 참고하여 <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표>를 통해 내리게 될 결론은 실증적 접근에 따른 결론이 되며, 따라서 이러한 결론 도출 방법이 갖는 문제점을 해석적 접근에 따라 지적해야 된다(<보기 1>은 Solomon Asch의 동조실험 절차를 재구성한 것이며, <표>에 제시된 수치는 문제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모범 답안 골격

1. <표>의 해석

<보기 1>에 제시된 실험에서 독립변수는 오답을 말하는 다수 집단의 만장일치 여부(7인 만장일치 vs. 6:1 분리)이고, 종속변수는 동조율이다. 이 실험에서 오답을 말하는 다수 집단에 만장일치가 있을 때 동조율 평균은 36%에 달한 반면, 다수 집단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만장일치가 깨졌을 때는 동조율 평균이 9%로 크게 낮아졌다. 실험에서 조작한 독립변수 이외에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이 결과로부터 다수 집단의 만장일치 여부가 동조율에 차이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과제는 누구나 정답을 알 수 있는 쉬운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만장일치로 오답을 주장할 경우 3분의 1이 넘는 대학생 참가자들이 다수에 동조했다. 이는 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사람들은 집단에서 배척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을 염려하여 다수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2. 평가

이 실험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한 변수가 다른 한 변수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접근법은 실증적 접근법의 한 예이다. 실험법은 통제된 환경에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실험실 환경을 떠나 결과를 실제 세계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실험에서 대학생들이 참가자로 선택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표집 특성에 따른 한계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는 다수 집단의 만장일치 여부가 동조율에서 차이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추론하겠지만, 실험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생각하고 느낀 점을 심층적으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동조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주관적 해석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해석적 접근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문제 3

<보기 2>와 <보기 3>은 복지 제도와 관련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두 연구자의 실제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두 주장의 근거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제시문>을 활용하여 설명해야 한다. <보기 2>는 실증적 접근에 따른 주장이므로

실증과 양적 분석에 기반한 규칙성 발견과 일반화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하고, <보기 3>은 해석적 접근에 따른 발견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개별 사례에 대한 의미 이해 노력, 다양성(특수성) 인정 등을 기반으로 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모범 답안 골격

1) 연구자 A와 B는 모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나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상반된 접근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2) 연구자 A : 인터뷰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2> 활용 : 일반 법칙이 존재하고, 일반 법칙을 통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복지 수당 수혜자들이 정부를 속이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복지 수당이 실제 생활비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복지 수당 수혜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과관계의 규칙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타당하다.

<제시문 4> 활용 : 규칙성을 실증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적절한 방법이며, 규칙성을 발견하면 사회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인터뷰를 통하여 인과관계의 규칙성을 찾아내고, 이를 통하여 복지 수당이 실제 생활비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면 복지 수당 수혜자들이 정부를 속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제시문 5> 활용 : 통계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사회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힐 수 있고, 이러한 상관관계가 다른 사례(지역)에서 발견된다면 상관관계가 일반법칙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 복지 수당과 실제 생활비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복지 수당 수혜자들이 정부를 속일 것이라고 추론하고, 또한 다른 유사한 사례를 통하여 상관관계의 규칙성(일반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3) 연구자 B : 인터뷰 대상자들의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1> 활용 :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복지 수당 수혜자들의 행동의 이유를 그들의 맥락과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반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인터뷰를 통하여 이유를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제시문 3> 활용 : 사회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 복지 수당 수혜자들의 행동의 주관적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행동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2. 해석적(질적) 연구 방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선택한 경우

- 해당 지역 사회의 특수한 환경(경제, 문화, 인구, 입지 조건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국가의 경험 등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적절하지 않음.
- <제시문 1>에서 티벳 조장 풍습을 티벳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한 점, <제시문 3>에서 주관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떠나서는 사회에 대해 무언가를 서술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제시함.
- 카지노 도입의 효과를 수치로 계량화하거나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대신 참여 관찰이나 심층 면접법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카지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인 가치나 견해)를 해석해야 함.

문제 4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수험생이 선택해서 논술하라고 요구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카지노 합법화가 옳은지 틀린지 그 내용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실증적(양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를 수험생이 논리적으로 선택해서 논술하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범 답안 골격

1. 실증적(양적) 연구 방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선택한 경우

- 카지노 도입이 지역 경제 등에 미칠 효과를 다른 지역·국가의 경험적인 증거 자료 분석 또는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실험이나 자료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치로 계량화하는 점을 서술함.
- <제시문 2>에서 정당 제도와 정부 형태(구성) 간 '일반 법칙'을 주장한 점, <제시문 4>에서 '인간 세상에서도 법칙에 가까운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점, <제시문 5>에서 임신중절과 범죄율 간 상관관계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추론한 점 등을 활용함.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1) 문제

는 고용주들이 만들어 낸 차별의 희생양이 되어 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할지 모른다. 결국 이러한 사회 이동의 어려움은 그 사회의 낮은 형평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3〉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들에 대한 신호의 역할을 한다. 가령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은 첫째 소비자에 대하여 이 재화를 덜 사용하고 그 대체물을 더 많이 사용하라는 신호가 되며, 둘째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이 재화의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재화의 가격은 각 경제 주체가 그들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각 경제 주체는 이 가격의 움직임에 의하여 그 행동을 조정한다. 소비자가 이 신호에 따라 행동하면 효용이 늘 것이며, 생산자가 이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이윤이 늘어서 결국 국민의 복지와 소득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런데 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격은 그것이 경쟁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건, 혹은 정부 관리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건 간에 언제나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가격이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하므로 그 가격이 발하는 신호가 합리적이고 따라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의 경우에는 기회비용을 반영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가격이 발하는 신호는 비합리적이다. 그리하여 이런 상황에서 소비나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제시문 4〉

나쁜 사마리아 인들은 “경기장이 평평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계속 들먹인다. 만일 개발도상국들이 사용하는 보호주의 정책을 허용한다면 부자 나라들은 평평하지 않은 경기장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을 향해 오르막길을 오르느라 고생을 해야 하는데, 개발도상국들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을 향해 내리달아 공격을 하는 축구팀이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을 하게 하라. 이리니저러니 해도 근본적으로는 경쟁이 공정할 때에만 시장이 주는 혜택을 수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기장이 평평해야 한다.”라는 누가 들어도 지당한 개념을 들먹인다면 감히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선수들이 벌이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데 경기장이 평평하다면 결국 그 게임은 불공정한 것이 된다. 축구 경기를 하는 한편이 브라질 국가 대표 팀이고, 상대방은 열한 살 먹은 내 딸의 친구들로 짜여진 팀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여자아이들이 아래쪽을 향하여 내리달으며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제시문 5〉

기후변화 협약의 핵심 쟁점은 온실가스 방출량을 삭감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의 설정 여부이다. 이미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된 유럽연합은 강력한 규제를 원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기에 반대한다. 개발도상국들이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기후변화 협약에 반대하며 선진국에게 ‘기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지만, 그 원인인 탄소 배출은 사실상 몇 나라만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혼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상위 10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합치면 전체의 60%를 훌쩍 넘긴다. 인구를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개발도상국가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탄소 방출량은 7%에 그친다. 선진국이 일찍이 개발을 하면서 내뿜은 온실가스는 고스란히 공기 속에 누적돼 있다. 이것이 바로 개발도상국들이 ‘역사적 책임’을 묻는 이유이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전 세계 16억 명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동안, 미국 플로리다의 에어컨 1대는 1년 동안 캄보디아 사람이 평생 내보내는 양의 탄소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 1

아래 〈제시문 1〉~〈제시문 5〉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나누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0점)

〈제시문 1〉

다른 사람과 견주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 듯하다. 고대 이래로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경쟁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좋은 다툼’과 ‘나쁜 다툼’을 구별했다. 이러한 구별의 근거는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좋은 다툼’을 그리스어로 ‘아가토스 에리스(agathos eris)’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헤시오도스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남이 잘사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의욕이 솟구치므로
부지런히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집을 짓는다.
이웃과 이웃이 부를 향해 함께 달린다.
이러한 에리스는 인간에게 이롭다.
대장장이는 대장장이끼리, 미장이는 미장이끼리 겨루고
거지는 다른 거지를, 가수는 다른 가수를 시샘한다.

이 시에는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인간은 대장장이끼리 또는 미장이끼리 벌이는 실력경쟁을 좋아한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대장장은 다른 대장장이보다 더 훌륭한 가재도구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고, 미장은 다른 미장이보다 더 좋은 집을 지으려고 애쓴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효율성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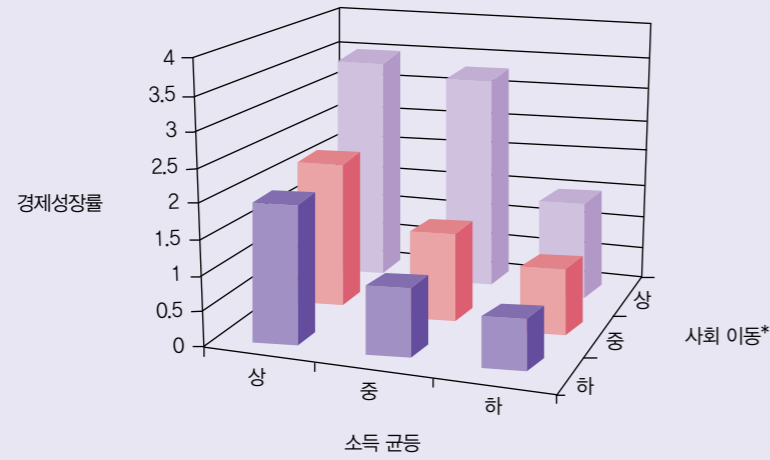
〈제시문 2〉

가난의 악순환을 탈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가난한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수세대 전 가난한 지역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지리와 역사는 운명이며 탈출할 수 없는 ‘빔’이다. 성적 불평등과 인종적 불평등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흑인들은 가난한 흑인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흑인 거주 지역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여성들은 여성 가족에서 태어나 여성들만 모인 지역에서 성장하지 않는다. 흑인들은 여성들과는 달리 부모로부터 가난과 거주지 등에 따른 불이익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흑인 지역에 살고 있는 흑인 남성을 예로 들어 보자. 통계적으로 볼 때 그에게 행운이 따를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대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지역에서 횡행하는 범죄가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전염될지 모른다. 어쩌면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의욕 부진에 시달릴지 모른다. 그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친구들과로부터 조롱을 받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슬럼가 밖의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맥을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문제 2

아래 <자료 1>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시오. (25점)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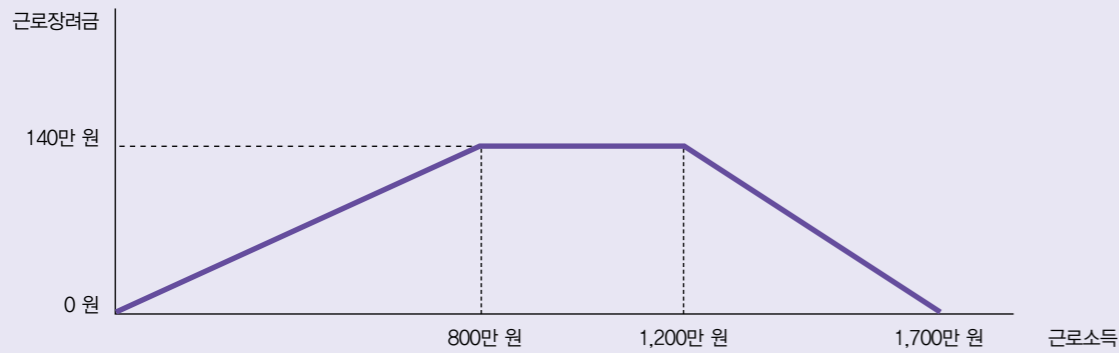


- i) 각 기동은 유사한 경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것
- ii) '경제성장률 = f(소득 균등, 사회 이동)'의 함수 관계를 가정할 것
- * 사회 이동 :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계층 간 이동을 뜻함.

문제 3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래 <자료 2>의 근로장려세제의 구조를 상세히 해석하고, 이 제도의 특징을 [문제 1]에서 언급된 사회적 가치들의 상호관계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30점)

<자료 2>



문제 4

아래 <보기>의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25점)

<보기>

세릴 홉우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혼자 힘으로 고등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다녔다. 그 뒤 텍사스로 이사해 텍사스 최고인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3.8점이고 입학시험도 그런대로 잘 보았는데(백분위 83점) 떨어지고 말았다. 백인 여성인 홉우드는 입학이 거절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합격생 중에는 홉우드보다 대학성적은 물론 입학시험 점수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있었다. 학교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학성과 입학시험 점수가 홉우드와 비슷한 소수집단 학생들은 전원 합격했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1) 문제 해설

출제 의도

이번 논술시험의 주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계이다.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평'과 '효율'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맺게 될지, 과연 양립 불가능한지 아니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주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중점 평가 영역과 관련시켜 4문제를 출제하였는데, 문제의 형식은 우리 대학이 그동안 제시해 온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 1번 문제는 제시문의 논지를 입장별로 구분하고 핵심 논지를 요약하는 능력, 2번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3번 문제는 제시문과 연관 지워 실제 사례를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4번 문제는 주어진 현실 정책에 대한 수험생 자신의 평가적 견해를 논증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논술의 주제가 형평성(혹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대비시킨 것이지만, 본 논술시험에서는 수험생의 개인적 입장이 어떤 쪽을 더 지지하는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즉 형평성과 효율성의 비교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 채점 기준이 아니며,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들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문제 1

효율성 혹은 형평성(공정성)과 관련된 5개의 제시문(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해당되는 3개의 제시문과 효율성 성취가 중요하다는 입장에 해당되는 2개의 제시문)을 제시한 후, 이를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도록 하였다.

모범 답안 골격

1. 바람직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서 '효율성'을 지지하는 입장

〈제시문 1〉 : 개인들 간의 경쟁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제시문 3〉 : (경쟁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소득을 극대화한다.

2. 바람직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서 '형평성'을 지지하는 입장

〈제시문 2〉 :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이동이 낮은) 사회는 형평성이 낮은 사회이다.

〈제시문 4〉 :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형평성을 갖추어야) 시장은 효율적일 수 있다.

〈제시문 5〉 : 기후변화 협약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출발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형평성을 결여한) 협약이다.

문제 2

그래프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두 입장에 대한 평가를 제시해야 한다. 이 그래프는 소득의 균등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계층 간 사회 이동이 열려 있는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가 보여 주는 시사점인 형평성의 추구가 궁극적으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모범 답안 골격

1. 〈자료 1〉의 해석

형평성의 증진이 효율성의 개선으로 이어짐을 나타낸다.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고, 사회 이동이 용이할수록 효율성의 지표인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 가점 :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더라도, 사회 이동이 약한 사회는 사회 이동이 활발한 사회에 비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 '형평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옹호

〈제시문 2〉 반영 :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사회 이동이 어려워지면 성장잠재력이 감소

〈제시문 4〉 반영 : 독점, 담합의 억제를 통한 불완전경쟁(시장실패) 해소는 공정한 경쟁을 유인하여 효율성을 높임.

〈제시문 5〉 반영 : 국민(국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경우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효율적인 경제 운용을 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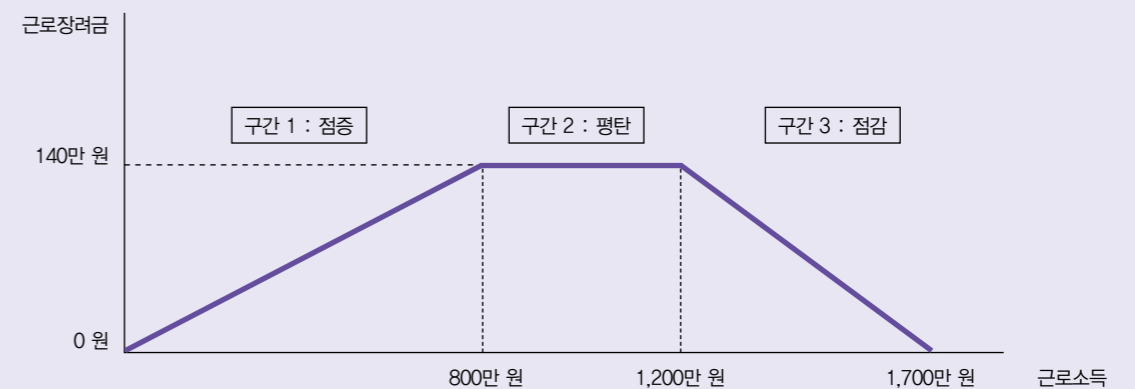
문제 3

〈자료 2〉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를 보여 주며, EBS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질문을 심화시킨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기본적으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제도이지만, 구간별 상세 분석을 통해 두 가치의 상호관계를 밝혀내도록 요구한 문제이다. 다음의 세 가지가 평가의 기준이다.

- ① 근로장려세제의 구조를 구간별로 나누어 설명하는가?
- ② 제도의 특징을 효율성과 형평성의 두 측면에서 제대로 서술하는가?
- ③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가?

모범 답안 골격

〈자료 2〉



1. (자료 2)의 해석

- :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최대 14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 구간 1(0~800만 원) :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하여 근로 유인효과가 나타나는 (점증) 구간이다.
- 구간 2(800~1,200만 원) : 근로장려금의 최대 급여(140만 원)가 유지되는 (평탄) 구간이다.
- 구간 3(1,200~1,700만 원) : 일정 소득구간 이상에서는 근로장려금이 점차 줄어드는 (점감) 구간이다.

2. 제도의 특징

- : 복지와 근로(노동)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이다.
-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생산적 복지' 이념을 구현한다.
- 형평성 측면 :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효율성 측면 : 근로 유인 기능이 있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문제 4

미국 대학에서 입학정책으로 취하고 있는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보기로 제시하고, 효율과 형평이라는 두 가치에 기반해서 찬성과 반대 중 한 입장을 선택하여 수험생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해 보도록 했다. 이 문제에서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입장을 취하였는지는 채점 기준이 아니다.

모범 답안 골격

1. 찬성 입장

- : 형평성을 제고한다.(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답안도 가능함)
- 〈제시문 2〉 활용 : 가난의 대물림(악순환) 현상을 차단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낮은 성적은 가난의 악순환의 결과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 〈제시문 4〉 활용 : 소수집단에게 기회를 제공하여(평평하지 않은 경기장 제공)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성적이 낮은 것은 기회의 차이 때문이지 실질적인 개인적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장기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제시문 5〉 활용 : 소수집단과 기득권층 사이의 (출발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소수집단 구성원의 성적이 낮은 것은 기득권층이 사회적 자원을 독점한 결과이지, 실질적인 개인적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2. 반대 입장

- : 효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역차별로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 〈제시문 1〉 활용 : 개인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사회 전체적 효율을 저해한다. 백인 여성인 흡우드보다 개인적 능력이 낮은 학생을 선발하여 사회 전체적인 변호사나 법조인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
- 〈제시문 2〉 활용 : 가난한 여성인 흡우드에 대한 역차별로 가난의 대물림(악순환) 현상을 심화시키고 형평성을 저해한다. 가난한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도 필요하다.
- 〈제시문 3〉 활용 : 자의적인 기준 결정으로 시장에 의한 효율적 자원 배분을 방해하여 국민의 복지와 소득 극대화를 저해한다.
- 〈제시문 4〉 활용 : 불공정하게 평평하지 않은 경기장을 제공하여 가난한 여성인 흡우드가 오르막을 오르는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 〈제시문 5〉 활용 : 가난한 여성인 흡우드와 부유한 소수집단 사이의 (출발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을 저해한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2) 문제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5〉는 사회적 규범 혹은 가치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핵심 논지를 기술하시오. (30점)

〈제시문 1〉

이샤이는 『세계인권사상사』에서 인권사상의 전사(前史)로 전통 유학을 포함한 동서양의 고전 사상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본래 모든 문화권의 공통 이상이였다. 다시 말해 동서를 막론하고 전근대의 사상가들은 인권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인권의 존중을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취지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전통 유교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전통 유교가 인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해에 가깝다. 물론 전통 유교는 오늘날의 자유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옹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 유교가 추구한 인륜공동체라는 관념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인권론의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전통 유교는 단순히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인륜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을 모색했던 것이다.

〈제시문 2〉

정의란 인간에 대한 일정한 취급을 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그런데 다양한 정의개념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취급’의 구체적 내용은 너무 달라서 서로 다른 정의규범들 간에 충돌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응보의 정의규범에 의하면 죄를 범한 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공적을 쌓은 자는 상을 받아야 하지만,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라는 정의규범에 의하면 죄와 공적은 고려될 여지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정의규범에는 인간의 자유를 다소간 제한하는 실제의 도덕질서나 법질서가 전제되어 있지만, 자유의 정의규범에 의거한다면 다른 모든 사회규범은 일차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정의의 일반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공허한 것일 뿐이다.

〈제시문 3〉

크레온 왕이 안티고네에게 국가의 뜻을 무시하고 오빠의 장례를 치른 것은 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추궁하자 안티고네는 이렇게 항변했다. “네, 그 법은 제우스 신께서 만든 법이 아니니까요. 인간 세상의 신들과 함께 옥좌에 앉은 정의의 신도 이런 법을 세상에 반포하신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변치 않는 하늘의 법을 어길 수가 있을까요? 하늘의 법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소멸하지 않으며, 이 법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이 법을 어겨 하늘의 분노를 사고 싶지 않습니다.”

〈제시문 4〉

흔히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보편타당한 인생의 목적이나 행위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한다. 근대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도 생각하면 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내 가슴을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채워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 도덕률이라고 하였다. 하늘에는 우주의 법칙이 존재한다.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연한 질서가 있으며 이 질서가 깨어지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인간에게도 내면의 질서가 있으니 그것이 양심의 법칙이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 또는 행동의 법칙으로서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타당한 삶의 원리다. 어떤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옳다고 느낄 수 있는 행동의 지침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타인에게 고통을 전가하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다른 이와 공모하는 경우 또는 취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의 이익 또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를 국제 정치의 영역에 적용하면 우리는 보편적 인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의 본질적 요소인 이성 및 도덕적 능력에 우리의 충성심을 우선적으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시문 5〉

모든 시대와 사회는 그 나름의 규칙을 가지며 따라서 윤리나 도덕이란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권 속에서 채택된 기준과 규칙에 따르는 문제이다. 사실 서로 다른 문화권이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 규범을 가진다는 생각은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러한 견해는 당연히 보편적인 사회규범의 부정으로 귀결된다. 이는 우리가 선호하고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규범의 기준 그 자체를 회의하게 함으로써 열린 마음으로 다른 체계의 윤리나 규범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규범이란 그것이 유용한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실행되고 있는 사회적 행위의 규칙이다. 불비는 거리나 계단에서 우측통행이 한 예다.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법률이 없고 때로는 다른 쪽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편하거나 빠를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고수하려 한다. 일부다처제의 경우를 보자. 엄밀히 따져 본다면 일부일처제가 가진 도덕 정당성만큼이나 일부다처제에도 합리적인 면이 있다. 특히 부족 간의 전쟁이 빈번했던 고대 사회에서의 일부다처제를 전쟁에서 가장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생존적 차원에서의 상호부조라고 본다면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일반적 수용이 통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여긴다. 규범은 명시적인 포고 또는 진화과정의 결과일 수 있다. 잠재적으로 유용한 집단적인 습관이 일단 어떤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면 확산과 강화의 과정이 있게 되고 결국에는 폭넓게 수용되는 규범으로 귀결된다.

문제 2

〈보기 1〉에 나타난 맹자의 견해를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해설하시오. (20점)

〈보기 1〉

양혜왕이 말했다. “과인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중략) 이웃 나라의 정치를 살펴보았지만, 왕이 나처럼 백성들을 위해 마음 쓰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나라의 백성들이 더 줄어들지도 않고, 나의 백성들이 더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에게서 대답하셨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에 비유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진격의 북소리가 동동 울리면 양쪽 군대가 서로 부딪히면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그러고는 곧 갑옷을 벗어 던지고 무기는 질질 끌면서 달아나는 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자는 단숨에 백 걸음을 달아난 후에 멈추어 서고, 어떤 자는 단숨에 오십 걸음을 달아난 후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이 오십 걸음 달아난 자가 백 걸음 달아난 자를 보고 겁 많은 놈이라 비웃어도 되는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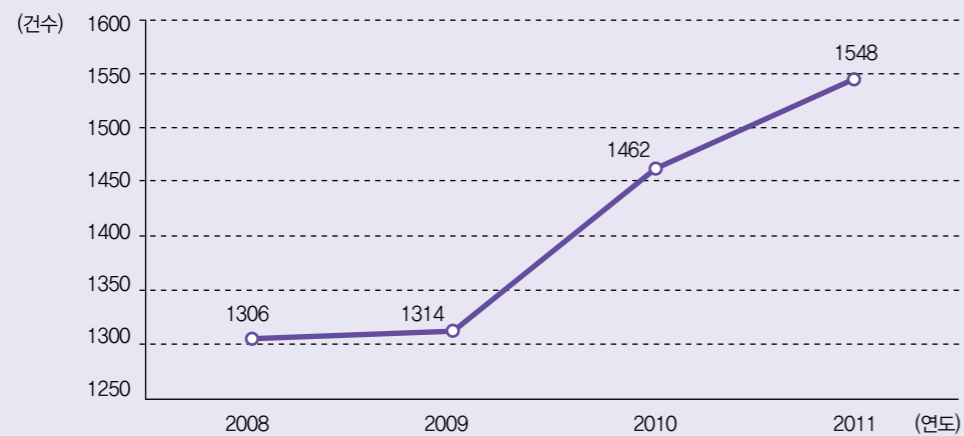
문제 3

아래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각 현상들을 [문제 1]의 두 가지 입장 중 하나에 근거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30점)

〈자료 1〉 국내 초혼 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현황

연도	남편 연상	아내 연상
2008	70.4%	13.7%
2009	69.6%	14.3%
2010	69.1%	14.9%
2011	68.4%	15.3%

〈자료 2〉 국내 입양 현황



문제 4

〈보기 2〉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한 논쟁 중 하나를 요약한 것이다. 유럽연합 측의 정책을 [문제 1]의 제시문에 나타난 한 입장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20점)

〈보기 2〉

오늘날 유럽연합 확대의 가장 큰 이슈는 터키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1993년 6월 코펜하겐 유럽연합 이사회가 채택한 가입 기준에 의하면 모든 유럽 국가는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전제로서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를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근거한 입법, 사법, 행정의 시행과 소수자에게까지 고루 미치는 자유와 인권의 보장 없이는 유럽연합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도 유럽연합을 주도해 온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대외정책의 핵심 원칙이자 기초로서 강조하여 왔고 국제적으로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터키가 유럽 국가의 범주에 드는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사실상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이 계속 실패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이다. 터키가 1987년 가입 후보국 승인에서 배제될 때도 이러한 원칙이 문제가 되었으며, 1997년에도 쿠르드 족에 대한 차별, 사형제도 존속과 같은 열악한 인권 상황이 빌미가 되어 가입협상 후보국의 지위를 거부당했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2) 문제 해설

출제 의도

수험 대상자가 사회과학 계열 지원 학생들인 점과 고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과서에서 다룬 제 시문에 나타난 사회규범 혹은 가치관에 관한 견해들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우리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논제로 선정하였다.

사회의 규범 혹은 가치관에 관한 견해 중 절대성/보편성 또는 상대성 관점 중 수험생이 어느 관점을 지지 혹은 활용하는지는 채점 기준이 아니며,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과,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하는 능력을 확인하려 하였다.

문제 1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의 측면에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절대성/보편성(제시문 1, 3, 4) 관점과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옳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성(제시문 2, 5) 관점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입장을 요약하는 문제이다.

모범 답안 골격

1. 입장 1 - 절대성/보편성

- 〈제시문 1〉 : 인권 존중 사상이 모든 문화권의 공통적 가치라는 점을 가치의 보편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음.
- 〈제시문 3〉 : 보편적인 하늘의 법이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언제 어디에 있건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가 있음.
- 〈제시문 4〉 : 어떤 인간 사회에서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행동의 지침이 반드시 존재함. 인간에게는 보편타당한 목적과 행위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음.

2. 입장 2 - 상대성

- 〈제시문 2〉 : 모든 사회규범은 일반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함. 따라서 절대성/보편성의 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제시문 5〉 : 모든 시대와 사회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윤리나 도덕은 각각 다른 기준과 규칙에 따라야 함. 사회의 행위 규범이나 규칙은 합의나 수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임. 즉 체계의 규범이나 가치의 문제를 상대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문제 2

양해왕의 질문에 대한 맹자의 답변의 근간 논리를 제시문의 맥락에서 해설하는 문제이다.

모범 답안 골격

[문제 1]의 <제시문 1, 3, 4>에 의하면 특정 현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 보편적/절대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들의 상대적인 평가는 무의미하다. 구체적으로 양해왕 본인은 이웃 왕과 비교해 보다 선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백성 수의 변화로 판단한 선정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맹자는 전쟁에서 병사들의 후퇴 정도의 비유를 이용하여('오십보 백보'의 비유) 결국 어떠한 현상이나 행위를 판단하는 보편적/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쟁에서는 병사의 후퇴 여부가 비난의 보편적/절대적인 기준이 될 뿐 어느 정도 후퇴했는가 하는 상대적인 평가는 무의미하다는 견해이다.

→ 구체적인 논리의 제시 없이 단지 절대성/보편성과 상대성의 구분에 그치는 경우 감점 대상임.

문제 3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진행된 사회 현상의 변화를 지문 속에 나타난 관점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문제이다.

모범 답안 골격

1. <자료 1>에 대한 설명 예시

규범의 기준에는 일반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고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변화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내용(제시문 2)과 사회의 행위 규범이나 규칙은 유용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나 수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내용(제시문 5)에 비추어 볼 때 <자료 1>은 우리나라 초혼에 있어 '남편 연상, 아내 연하'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절대적, 보편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기보다는 상대성을 갖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되어야 함.

2. <자료 2>에 대한 설명 예시

규범의 기준에는 일반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고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변화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내용(제시문 2)과 사회의 행위 규범이나 규칙은 유용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나 수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내용(제시문 5)에 비추어 볼 때 <자료 2>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친자(혈연) 선호'라는 가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절대적, 보편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기보다는 상대성을 갖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되어야 함.

문제 4

- 학생들에게 현실 속에서 가치의 절대성/보편성과 상대성의 문제가 나타나는 모습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응용력을 측정하려 하였다.
- 문제 풀이의 핵심은 유럽연합의 주도국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전체에서 실현되어야 할 일종의 절대적/보편적 가치로서 보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는 데 있다.

모범 답안 골격

1) 민주주의와 인권은 절대/보편가치임을 확인하고 유럽연합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 경우 채점의 포인트는 단지 민주주의와 인권은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3) 문제

문제 1

아래 <설명>에 기초하여, <제시문 1>~<제시문 4>가 묘사하고 있는 사회체제의 특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그 주요 특징을 서술하시오. (25점)

<설명>

경제체제는 사회적 자원의 생산과 배분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문제로서, 순수한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로 구분될 수 있다. 순수한 시장경제체제가 시장의 역할을 중시함에 비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다. 인류 역사에서 근현대사회의 경제체제는 국가별·시대별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이를테면 미국 사회의 경우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전까지는 시장의 역할이 중시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정부 정책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된 경향이 있고, 한국 사회의 경우 미국 사회에 비하여 사회적 시장경제 요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체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이념적 축으로 구성된다. 정치체제는 국민 혹은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문제로서,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함에 비하여 민주주의는 복수의 개인들 사이의 평등을 더 중시한다. 순수한 형태의 자유주의가 전체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개개 시민으로서의 천부적 자유 및 그 권리의 발현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순수한 형태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동등한 의사결정권의 발현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시문 1>

모든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그러나 불완전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등이 존재할 경우, 그 사회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현대국가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해 왔으며, 정부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즉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 제약 조건, 근시안적 규제, 시장경제와 같은 유인동기의 부족,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 빈부격차 및 산업구조의 독과점화가 심화되어, 결국은 그 사회 전체의 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제시문 2>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 하나의 측면은 공무원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집회·결사의 자유 역시 인정되어야 하는 동시에 근로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에 대한 중립성 등의 보장을 위하여 집단적인 파업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현행 관련 법령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업무를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법원 역시 이와 같은 법령이 공무원의 자유를 일부 침해하더라도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제시문 3>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복수의 개인들 사이의 평등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상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됨과 동시에 개인들 사이의 평등까지도 보장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불가피하게 희생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두 가지 불가피한 상황, 즉 (1)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만 평등은 보장되지 않는 상황, (2)개인들 사이의 평등은 보장되지만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 상황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이 (2)보다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불평등과 타인의 특권을 감내해야 하더라도, 국가뿐 아니라 어느 누구의 침해도 없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가하는 편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하는 전체주의적 분위기에서 평등을 구가하는 편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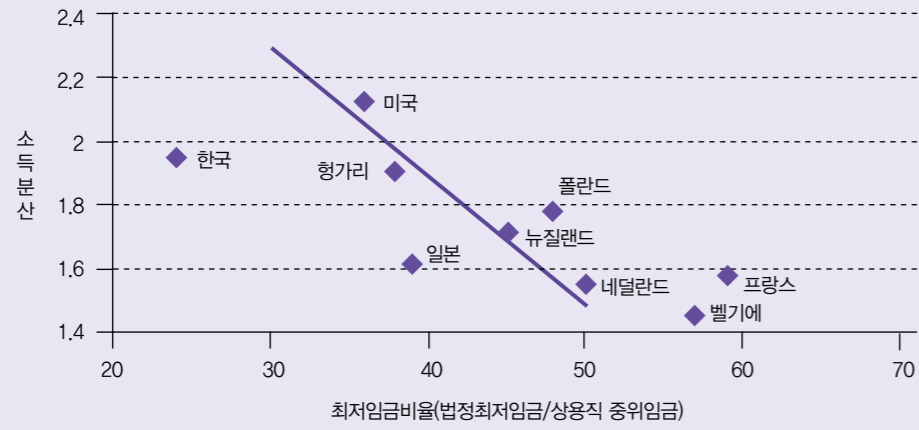
<제시문 4>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들의 능력 차이뿐만 아니라 부의 축적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한 사회 내에서의 빈부격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지나친 확대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의 전체적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강제적 가격규제는 비숙련 단순 노동직종을 대체하는 업무 자동화를 더욱 촉진하여,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고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목적이 어떠한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임금을 정부가 강제로 결정할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문제 2

아래 자료들을 각각 해석하고 이 자료들에 근거하여 [문제 1]의 시장경제체제에 관한 두 유형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시오. (30점)

〈자료 1〉 OECD 국가의 법정최저임금과 소득분산



$$* \text{소득분산}(s^2) = \frac{1}{N} \sum_{i=1}^N (x_i - \bar{x})^2$$

** 소득분산(s^2)이란 특정 국가 국민 개인들의 소득(x_i)과 평균소득(\bar{x}) 간의 차이의 제곱을 모두 합한 후, 국민의 수(N)로 나눈 값이다.

〈자료 2〉 각국의 법정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제도와 출산율

국가	법정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일	이용률	출산율
스웨덴	60일	95.8%	1.98명
영국	14일	72.2%	1.84명
한국	3일	23.6%	1.22명

문제 3

아래 〈사례〉를 활용하여 [문제 1]의 정치체제에 관한 두 유형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시오. (20점)

〈사례〉

미국 뉴욕 주 보건당국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비만 방지를 위하여, 학교 인근에서 고열량 인스턴트 음식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도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주민에게 건강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voucher)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비만 증상을 보이는 성인들의 경우에도 고열량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개인의 선택을 무시하는 정부의 과잉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뉴욕 주 의회의 조례로 통과되고 뉴욕 주민 대다수 역시 이러한 정부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 4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SSM 규제정책의 타당성을 [문제 1]의 〈제시문 3〉과 〈제시문 4〉 각각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25점)

※ SSM(Super Supermarket)은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3) 문제 해설

출제 의도

현대사회의 두 가지 핵심적 사회체제인 경제체제(economic system)와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의 이념형적 구분 및 그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출제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경제체제 및 사회체제의 유형 및 내용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될 뿐더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기도 하다.

한편 현실사회는 실제로 순수한 형태의 경제체제 혹은 정치체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은 두 체제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혼합된 체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체제의 이념형적 구분 및 그 세부 내용을 분석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를 감안하여, 이번 논술 문제에서는 아예 해당 구분 및 내용을 <설명>의 형태로 문제 속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질문을 시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문제에서 수험생이 어떠한 유형의 경제체제 및 정치체제를 선호하거나 지지하느냐는 채점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분석하고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하느냐가 중요한 채점 기준이다.

문제 1

경제체제로서 순수한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정치체제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각각을 반영하거나 설명하는 네 가지 제시문을 제시하고 각 제시문의 내용이 어떠한 경제체제 혹은 정치체제와 부합한다고 보는지를 연결 지우도록 하였다.

모범 답안 골격

<제시문 1> : 시장경제체제 중에서 시장의 역할 외에 정부의 개입에 의한 예외적 조정이 경제성장의 효율적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모습을 보여 준다.

<제시문 2> : 정치체제 중에서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이 국민 전체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에 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평등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 준다.

<제시문 3> : 개인의 자유와 시민 전체의 평등은 모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지만, 이 중 하나가 제한되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면, 개인의 평등은 다소 제한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주의적 정치체제임을 보여 준다.

<제시문 4> : 시장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이고,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 순수한 시장경제체제의 모습이다.

→ 결국 시장경제체제는 순수한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정치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구분된다.

→ 대립되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응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에 대한 각각의 대응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문제 2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자료를 보여 주고, 이 자료들이 경제체제의 어떠한 유형과 부합하는지(또한 다른 유형과는 왜 부합하지 않는지)를 그 근거와 더불어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모범 답안 골격

1. <자료 1>의 해석

OECD 국가 중 최저임금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소득분산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수준의 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최저임금정책은 소득수준의 평등도를 개선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2. <자료 2>의 해석

법정유급휴가일이 많은 국가들은 출산율이 높으며, 법정유급휴가일이 낮은 국가들은 출산율이 낮다. 이는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더 강력한 정책 개입을 할 경우, 출산율 제고에 더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3. 두 유형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1) '순수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제시문 4>에 나타나는 순수한 시장경제체제는 경제주체들 간의 자발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정부 정책 개입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자료 1>과 <자료 2>는 정부 정책 개입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에, 순수한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주장인 <제시문 4>의 입장이 현실과 다름(즉 틀렸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제시문 1>에 나타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실패 교정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 개입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높이는 정부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1>과 <자료 2>는 <제시문 1>의 입장을 옹호하는 자료이다.

문제 3

미국에서 고열량 인스턴트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려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이 정책이 정치체제의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유형과 부합하는지(또한 다른 유형과는 왜 부합하지 않는지)를 그 근거와 더불어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모범 답안 골격

주어진 <사례>는 뉴욕 주 저소득층 주민들이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들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정책 개입이다. 뉴욕 주민들의 평등권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까지 받아서 성공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정치체제에 있어,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보다 더 중요하며, 뉴욕 주의 사례에서 확인됨을 보여 준다. 즉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더라도 평등한 민주적 질서를 강조하는 <제시문 2>가 뉴욕 주의 사례를 통해서 타당함이 확인된다. 반면, 불평등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주장하는 <제시문 3>은 뉴욕 주의 사례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

수험생들을 위해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 1)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답안과 평가 내용을 공개합니다. 우리 대학 논술시험은 분량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시된 답안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문제 전문은 이 가이드북 58~61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Top Secret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5>는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채점 포인트

- ① <제시문>들을 올바르게 분류하였는가?
- ② 각 <제시문> 안에서 키워드('목적'과 '수단')를 제대로 포착하였는가?
- ③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를 키워드로 사용하여 분류한 경우, 한 등급을 감점한다.
- ④ 각 <제시문>의 요지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는가?

학생 답안

①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제시문 1>은 군주로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을 때 모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즉 군주가 나라를 살리겠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올바른 수단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제시문 4>에서도 가브리엘 신부에게서 수단이 바람직하지 그렇지 못한지를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브리엘 신부는 무력을 사용하려 한 신부를 비판하며 신부다운 방법을 추구한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인간애적인 수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즉 수단이 정당해야 목적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반면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5>는 수단의 정당성보다는 행위의 목적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제시문 2>의 목적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 우리에게 유익한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 즉 목적이 좋으면 어떤 수단이든 허용된다고 본다. 이는 <제시문 3>이 제시한 군주상에서도 나타난다. 선하게만 행동하는, 즉 수단의 정당성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군주는 목적을 위해서 부도덕한 수단이라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시문 5> 역시 발견이나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일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몇몇 인명의 희생이라는 좋지 않은 수단이 동원될지라도 인류를 구원한다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

- ①과 ②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 제시문들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제시문 1, 4)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입장(제시문 2, 3, 5)으로 정확하게 분류했다.
- 각 제시문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했다.
-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해당 제시문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점이 좋았다.

[문제 1]의 대립 구도하에서 <보기 1>의 갈등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서술하시오.

채점 포인트

- ① [문제 1]의 대립 구도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서술하였는가? 단, 공리주의 대 의무주의의 대립으로 설정하는 경우, 한 등급 감점한다.
- ② 다각적인 검토, 즉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김상현과 최명길의 입장이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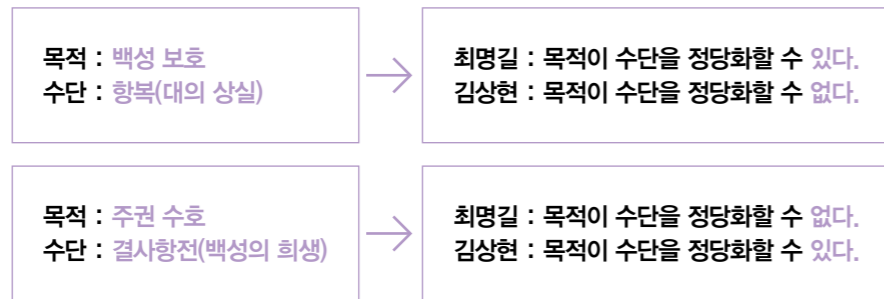
학생 답안

<보기>에서 나타난 김상현과 최명길의 갈등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① 첫째, 목적을 '백성 보호'에 두고 '행복'을 수단으로 보는 경우이다. 김상현은 행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면 백성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지만, '뜻을 배어앗기면 모든 것을 배어앗기는 것'이라는 말을 통해 행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최명길은 행복을 통해 백성을 지키고 땅을 지킬 수 있다면 비록 행복이 치욕적인 방법일지라도 정당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말한다.

② 둘째, 목적을 '나라의 주권 수호'로 삼고 수단을 '결사 항전'으로 삼은 경우이다. 최명길은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결사 항전은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나쁘면 나쁜 것이라는 태도이다. 이와 달리 김상현은 결사 항전은 비록 백성들이 더 많이 죽지만 나라의 주권 수호를 위한 수단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평가

- [문제 1]의 대립 구도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기>의 상황을 평가하라는 문제에 충실하게 답한 글이다.
- ①과 ②에서 '갈등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라는 조건에 충실히 답했으며, 김상현과 최명길의 관점을 간결하면서도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잘 분석했다.



<자료>가 보여 주는 두 현상을 [문제 1]의 입장(들)과 연관시켜 각각 설명하시오.

채점 포인트

- ① 자료에 나타난 현상을 각 국가 집단별로 구분하여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가?
- ②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활용하여 각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가?
- ③ 공리주의 대 의무주의의 대립으로 설정하는 경우, 한 등급을 감점한다.

학생 답안

<자료>의 ① 국가 집단 A는 [문제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5>의 입장에 부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국가 집단 A에서 공해 산업 비중과 일인당 국민소득은 양의 상관관계로 공해 산업 비중이 높을수록 일인당 국민소득이 많아진다. ② 공해 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원칙적으로 선한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 집단 A는 공해 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많아지는, 즉 사회적 이익의 증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정당화된다고 봤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국가 집단 A' 그래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반면에 ③ 국가 집단 B는 [문제 1]의 '행위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적 행위의 정당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제시문 1>과 <제시문 4>의 입장과 부합하는 현상을 보여 준다. 국가 집단 B에서는 공해 산업 비중과 일인당 국민소득은 음의 상관관계로 공해 산업 비중이 낮아질수록 일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④ 이는 공해 산업의 위치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소득의 증가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바람직한 수단을 통해 좋은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가

- ①과 ③에서 <자료>의 국가 집단 A와 B의 그래프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잘 연관시켜 답했다.
- ②를 통해 국가 집단 A의 그래프를 가지고 왜 ①과 같이 말할 수 있는지, ④를 통해 국가 집단 B의 그래프에 대해 왜 ③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문제 1]의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 사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만 택하여 논술하시오. 그리고 <보기 2>를 참고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채점 포인트

- ①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여 정당화하는 논리 전개가 적절한가?
- ② 이 문제의 경우 찬반 입장을 목적에 의한 수단의 정당화 가능 여부가 아닌 공리주의와 의무주의의 대립의 관점에서 기술하더라도 감점 대상이 아니다.
- ③ 자신이 취한 입장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점들을 고려하였는가?
- ④ 제시한 극복 방안은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가?
- ⑤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입장을 취하였는지는 채점 기준이 아니다.

학생 답안 1 _ 복권 판매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 사업은 바람직하다. ① 복권 수입은 정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의 복권 사업은 ②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정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다. 복권은 ③ 소비자인 개인에게는 즐거움을 그리고 판매자에게는 합법적인 수익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제시문 2>가 제시하는 목적론적인 윤리의 원리에 따라 복권 사업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정부의 복권 사업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유용하고 효용 가치가 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④ 복권이 비록 순수하게 선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복권 사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제시문 3>의 바람직한 군주에 관한 설명, 즉 군주는 목적을 위해 부도덕한 수단일지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통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가 복권 사업을 운영할 때 일반 국민, 특히 ⑤ 저소득층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기 때문에 정부가 복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⑥ 복권 구매자들 중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복권 문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⑦ 1인당 복권 판매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평가

- 이 답안은 다음과 같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 복권 판매의 긍정적인 결과[①, ②, ③] → 복권 판매의 도덕적 정당성(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정당화된다)[④] → 비판[⑤] → 비판에 대한 극복 방안[⑥, ⑦]
- 그러나 극복 방안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보다 창의적인 방안 제시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학생 답안 2 _ 복권 판매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복권 사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이를 해서는 안 된다.

① 만약 사회에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복권 사업이 인정을 받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를 '한탕주의'로 내몰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건전한 윤리관을 해쳐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일확천금이라는 복권의 매력에 빠져 저소득층 사람들을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정부가 복권 판매를 통해 도움을 주려 했던 사람들의 상황을 오히려 나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복권 사업이라는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복권 수입을 통해 오히려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재정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와 복권을 살 것인지 는 개인의 선택 문제일 뿐이라는 이유로 복권을 판매하는 것이 좋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② 그러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 마련 이 목적이라면 세금 인상과 같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평가

-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 단락을 잘 구성하였다.
- ①에서 복권 사업을 정당하지 못한 이유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②에서 극복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창의적인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http://admission.skku.edu/>